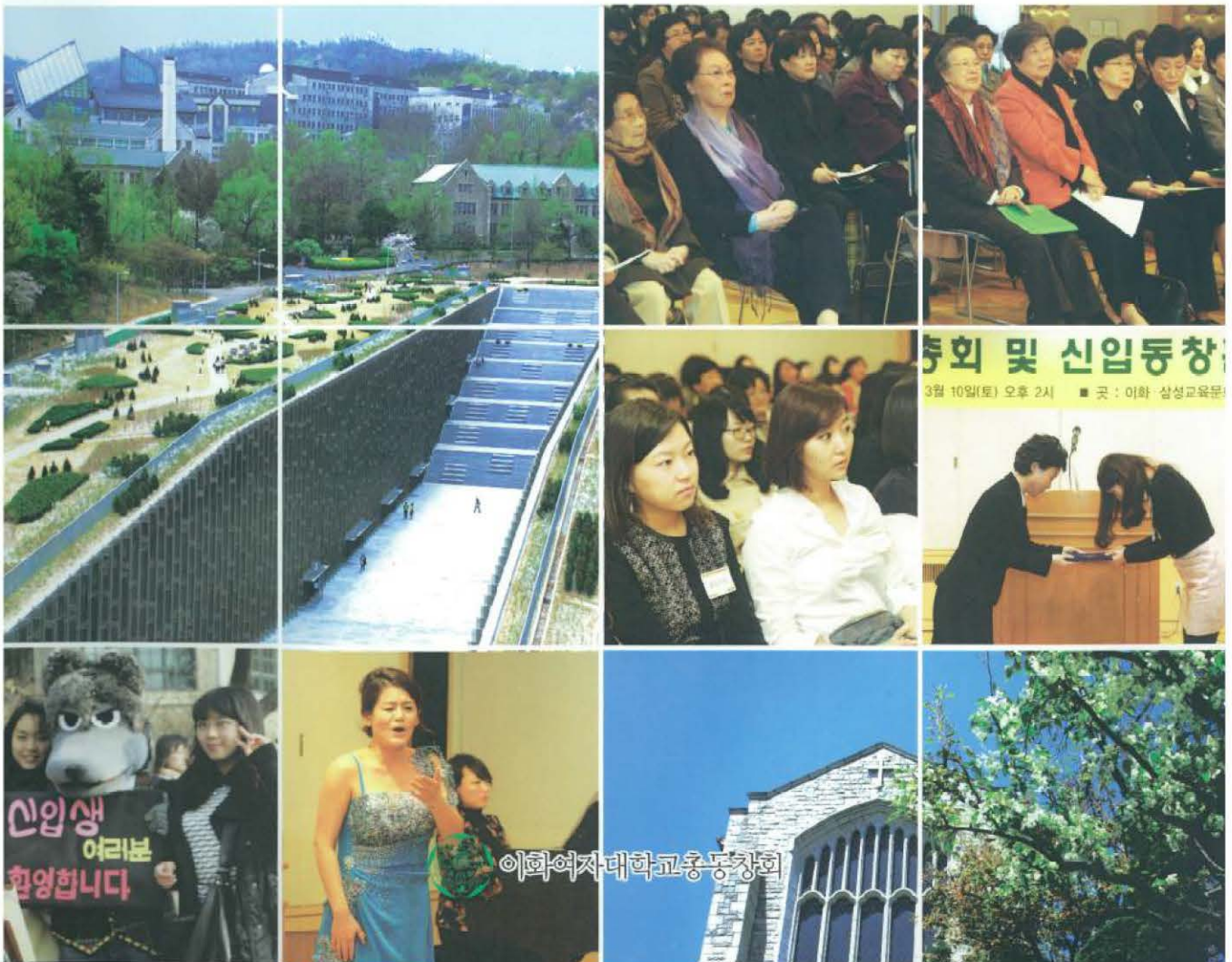


이화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회보 2012년 봄 제12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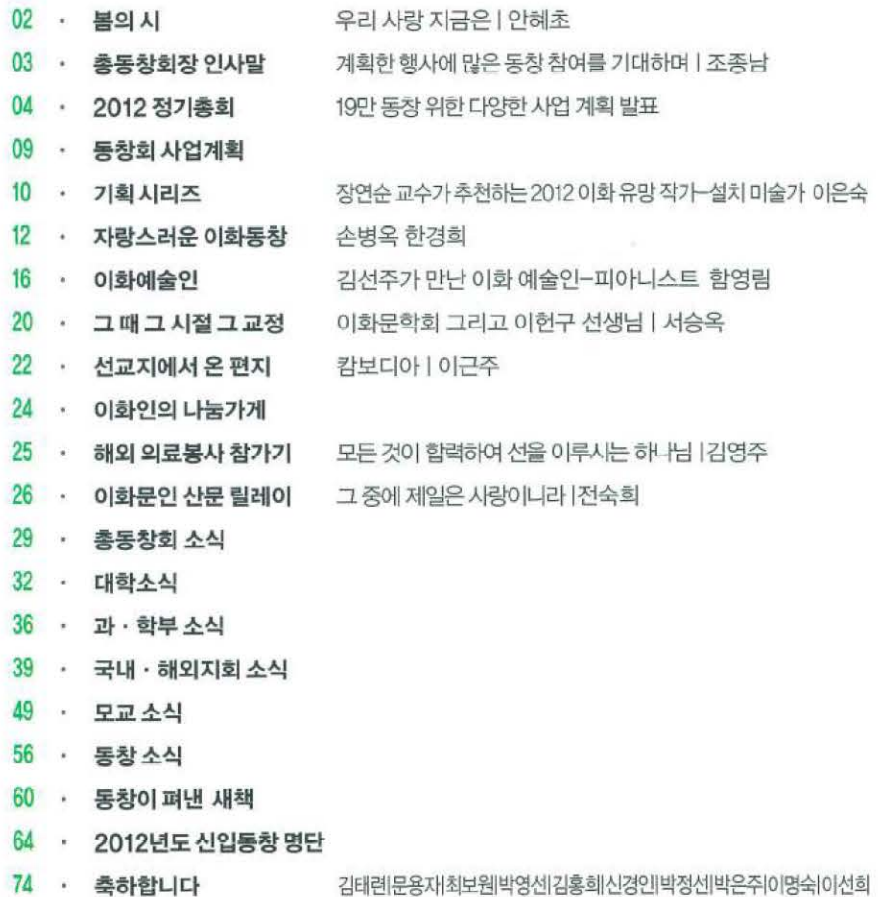
이화 해외 의료봉사단 발대식

세계 속에 나눔 실천한 '이화 해외 의료 봉사단'

이화인의 아름다운 의료 봉사의 손길이 세계 속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1월 7일부터 일주일간 베트남 하노이 남부 Thieu Hoa현에서 펼친 '이화 해외 의료 봉사단'의
의료 헌신은 진정한 기독교 정신의 값진 발현이기도 하다.(관련기사 25P)



2012년 봄 제126호



조종남(의학75) | 박유나(도예81) | 조경원(교육75) | 박경임(식영73) | 김효신(의학84)
유영선(신방75) | 김선주(불문65) | 백수경(신방79) | 김경은(영문79)

© 2012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봄의 시

우리 사랑 지금은

안 혜 초
영문 65

우리 사랑 지금은
잠들어 가도
조금씩 알게 모르게
잠들어 가도
그대와 나
어느 한쪽이라도
깨어 있으면
오늘월의 싱그러운 햇바람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 사랑 이대로
스러지지 않아요
그대 사랑 나 먼저
하품을 하면
내 사랑이 자꾸
자꾸 흔들어 주고
내 사랑이 그대 먼저
눈을 비비면
그대 사랑 자꾸
자꾸 흔들어 줘서



계획한 행사에 많은 동창 참여를 기대 하며

회장 조종남 | 의학 75

작년 3월 12일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제16대 회장에 선임되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제 벌써 1년이 지나고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기쁜 마음입니다.

지난 3월 10일 열린 정기총회는 2011년을 결산하고 2012년의 새 계획들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모교 윤후정 명예총장님, 장명수 이사장님, 김선욱 총장님께 감사드리며 그 날 참석하신 260 여 명의 동창들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총동창회는 주영희, 장의순, 윤순희, 김순영 고문님의 도움과 16대 임원들의 협조, 19만 동창들의 격려로 순항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19만 명의 동창을 가진 대규모의 동창회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총동창회는 동창들이 좀 더 가깝게 느끼고 다가오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교에 동창들이 보다 자주 방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의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거닐며 교정을 화폭에 담은 '제 1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5월 12일 실시하려고 하며 기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품목의 대바자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더불어 모교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화인의 재능기부 프로그램에 입대 동창들의 법률상담 재능기부에 이어 의과대학 동창들의 건강상담 재능기부를 온라인을 통해 추진해 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베트남전에 참여한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잊어버린 2세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태어나 자신의 나라에서조차 적의 자식으로 취급받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는 '한베재단'에 도움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우리들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있게 나눌 수 있어야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모든 사업과 행사는 여러 동창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동창들이 참여하고 함께 동행하여야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동창들 모두 한 마음으로 총동창회가 펼치는 사업과 행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모든 행사장에서 여러 동창님들 얼굴을 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영주 사범대학 동창회장

조종남 총동창회장

유희숙 총동창회 감사

2012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 개최

19만 동창 위한 다양한 사업 계획 발표



윤후정 모교 명예총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선옥 모교 총장

지난 3월 10일 오후 2시 총동창회는 2012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를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 교육문화회관 8층)에서 개최하였다. 260 여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입 동창 환영회에서는 김영주(유교 71) 사범대학 동창회장의 환영사와 강초롱(행정) 신입 동창의 답사가 있었다. 이어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는 유희숙(법학 65) 감사의 2011년도 사업 및 결산안 감사 보고와 2012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을 참석 동창들의 큰 박수 속에 '가' 로써 조종남 총동창회장이 인준됨을 선포하였다.

모교 윤후정 명예 총장, 김선옥 총장, 장명수 이사장 등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조종남 총동창회장은 개회사에서 1년 전 제 16대 총동창회 회장에 선임되었던 때를 회고하면서 그동안 여러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동창들께 진심을 담은 감사를 표하였다.



장학금 전달

신입동창환영 선물 전달

이어서 19만 동창들이 총동창회와 모교를 좀 더 가깝게 느끼고 다가올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개최하는 5월 12일 '제1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 많은 이화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우리들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있게 나눌 수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베트남에 버려진 한국계 어린이를 돕는 '한베 재단'에 앞으로 동창회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더불어 작년에 법대 동창들의 법률상담 재능기부로 모교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화인의 재능기부 프로그램에 의과대학 동창들의 건강상담을 온라인을 통해 추진해 보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밝혀 참석 동창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장명수 이사장의 '19만 명에 이르는 훌륭한 동창들을 가진 총동창회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축사는 촌철살인(寸鐵殺人)처럼 참석 동창들을 감동시켰고, 김선옥 총장의 2012년 모교 소식 발표에 참석 동창들은 다시한번 모교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날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식순에 없었던 윤후정 명예총장의 즉석 격려 말씀이었다. 1975년도 졸업생인 조종남 총동창회장, 김선옥 총장과 1964년 졸업생인 장명수 이사장 등 세 분을 '생생 삼총사'로 거명하며 지난 1년간 총동창회와 모교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덕담으로 총회장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이 날 행사에서는 박성희(성악 01) 동창의 축가가 있었고 교가 제창을 끝으로 앞으로 열릴 행사에서 많은 동창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약하며 폐회하였다.





신입동창 답사 | 강초롱(사회과학대 행정학과)

이화의 명성과 자긍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2005년 신입생 때 느꼈던 그 설렘과 떨림이 기억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붙여서 제대로 된 독사진이 한 장도 없었던 입학식, 하이힐을 신고도 거뜬하게 전력질주를 하는 선배님들과 친구들, 채플에 단 1분만 늦어도 단혀 버리는 대

강당문, 졸업채플에서 눈물을 흘리던 선배님들. 그렇게 낮설었던 이화의 모습들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덧 마음속 깊이 이화를 사랑하는 이화인이 되었습니다. 봄이면 개나리와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이면 오래된 고목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가을이면 은행잎과 단풍나무가 곱게 물들며, 겨울에는 온 교정이 하얗게 눈동산이 되는 교정. 역사를 간직하고 품스러운 건물과 세련된 현대의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이화의 모습은 다른 어떤 교정보다도 아름답고 멋스럽습니다.

이화는 저에게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계신 멋진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성리더로 성장하는 꿈을 기울 수 있었습니다. 이화는 저를 어린 학생에서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현명한 성인으로 한 단계 성장시켜준 곳입니다.

이제 저도 신입동창으로서 선배님들이 걸어오신 길을 이어가려합니다. 사회에서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서 이화의 명성과 자긍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배들에게는 모범이 되면서도 후배들의 앞길을 단단히 다지는 든든한 선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애정 어린 눈길로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2 총동창회 사업 계획

총동창회는
다음과 같이
2012년도 사업 계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창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기대합니다.

- 정기총회 3월10일(토)
- 신입동창 환영회 및 장학금 수여 3월10일(토)
- 각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지회장
초청 간담회 4월19일(목)
-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 4월28일(토)
- 이화가족제1회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5월12일(토)
- 이화창립126주년 기념 감사찬양제 5월15일(화)
- 동창회 기금마련 대바자 5월24일(목, 예정)
- 동창의 날 행사 5월31일(목)
1) 졸업 50주년(1961년 12월 졸업) 동창, 졸업 30주년(1982년 졸업)
동창재상봉 행사 2) 회보 경연대회 3) 합창제 외
- 후원이사 간담회 9월 또는 10월
- 문화특강(문화탐방으로 진행할 예정) 10월
-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 (11월1일~5일, 캐나다 밴쿠버)
- 제8회 '아름다운 이화인상' 시상 11월26일(월)
- 이화인의 밤 행사 11월26일(월)
- 이화가족 성탄 예배 12월6일(목)
- 동창회보 126호~129호 발간(3, 6, 9, 12월)
- 국내지회 활성화를 위한 지회 순방
- 모교 지원사업(연중)
1) 무료 법률상담 2) 온라인 의료상담 3) 나눔가게 외
- 연회비 납부 회원 배가 운동(연중)
- 동창회 기금마련 위한 소바자(연중)
- 모교 발전기금 모금(연중)
- 기념품 제작 및 판매(연중)
- 황화방 운영(연중)
- 기타

설치미술가 이은숙 ‘희망의 빛’ 메시지 전달하는 작가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작품
“사라진 베를린 장벽”

이은숙(자수과 79) 동창은 섬유예술과 졸업생 가운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작가이다. 지금에 와서 이화 식구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국제무대에서는 잘 알려진 뛰어난 작가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알고 지낸지 20년이 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한다. 1990년대 한국에서 작품 활동을 할 때 나는 이은숙 동창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그때 이미 그가 작품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이은숙 동창은 캐나다로 이주하며 활동 무대를 국제적으로 넓혀 갔고 많은 활동 중에서 특히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사라진 베를린 장벽” 설치작업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한국인으로서 독일인에게 조차 허락되지 않는 공공장소에서 거대

한 설치 작업이 가능했던 것은 이은숙 동창의 작업에 대한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현재 이은숙 동창은 다음 프로젝트를 한국에서 펼쳐 보이기 위해 귀국하여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은숙 작가를 소개하며 이 뜨거운 열정을 키워준 이화의 정신이 이화 식구 모두에게 이어져 가기를 기대해 본다. 아래 편지는 작가의 대표적 설치 작업인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 “사라진 베를린 장벽”과 한국에서 펼칠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작가의 이야기이다.

“사람들이 제가 그동안 해온 프로젝트를 보면 물어보나마나 당연히 외국서 공부를 하였고 그 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두가지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나마 영어는 듣다보면 아는 단어가 들리지만



Canada에 설치한 작품

독어는 전혀 모르니 눈치코치에 느는 건 짝뿐이지요. 나도 내가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짝다구로 버티는 예술가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 했거든요. 지난날 무관심속에서도 꾸준히 해온 7번의 개인전, 단 한번 입선조차도 하지 못한 공모전, 나와 의 싸움, 외로운 세월에서 내 작품이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꿈을 좇아 외국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나 스스로 무장을 하고 낯선 이국땅에서 유학이 아닌 나의 꿈을 펼쳐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국 땅 캐나다에서 또 다시 독일로 이주. 내가 큰 프로젝트를 베를린에서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베를린 장벽프로젝트를 하려고 베를린을 간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작품으로 베를린 장벽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해온 작품이 전통과 모던이 잘 어울리는 도시 베를린에서 어디에 설치되더라도 손색 없는 모던 아트라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이 꿈을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 내야 하는지 막연했지만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확신이 있었어요. 작가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역사적인 배경, 작가 부모가 이북에서 온 피난민이라는 배경이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투문 어 앞에 '사라진 베를린

장벽' 을 하기에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여튼 1Km는 아니지만 한국 이산가족 5000명의 이름이 들어간 '사라진 베를린 장벽'은 엄청나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유럽 각지에서 내 작품을 보러 일부러 베를린을 찾아왔거든요. 많은 베를린 시민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날 총을 맞아 죽을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었다고.... 오히려 내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벅찬 감동을 받았어요.

앞으로 계획은 세계 분쟁지역에 아픔과 슬픔이 있는 현장에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며 희망의 빛을 전하는 메시지의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분쟁지역 중의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답니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는데도 과감하게 뛰어들어야만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한국프로젝트 '헤어진 이름들' 현장에서 여러분 모두 다 같이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장연순

생활미술과 73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섬유예술전공 교수
2008년 올해의 작가,
국립현대미술관
15회 개인전



이은숙

1979년 이화여대 자수과 졸업
1983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졸업
2000년 캐나다로 이주하여 작품활동
2005년 독일 베를린으로 이주하여
작품활동
2012년 현재 한국 프로젝트 기획 중
www.eunsooklee.com

'금녀의 보험 CEO' 두꺼운 벽을 깬 조화와 포용의 리더

푸르덴셜생명대표

손 병 옥



현재 푸르덴셜생명 대표, 푸르덴셜 사회공헌 재단 이사, Make-A-Wish 한국재단 부이사장 여성가족부 정책사문위원회 위원,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 노동부 자력정책과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사, 이대 자문위원회 위원(리더십개발원 멘토), 숙대 커리어자문위원회 위원, 여성리더모임 WIN (Women In iNnovation) 회장 전 체이스맨해튼은행(서울), 부록클린 세이빙은행(미국 보스턴), Crocker National Bank(서울), Midland Bank(서울) 부장, HSBC Seoul 지배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인사개혁전문위원회 지문위원,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분과위원, Make-A-Wish 국제재단 이사

경기여고, 이대 영어영문학과(74), 서강대 경영대학원 MBA, George Mas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미국 버지니아), TESOL (Teaching Certificate for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수상/2010년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2004년 올해의 이화인

손병옥 대표는 '금녀의 보험 CEO'라는 유리천장을 깬 슈퍼우먼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뱅뱅사거리의 아이콘인 푸르덴셜빌딩 꼭대기 전망 좋은 방에서 만난 손동창은 올해 회갑을 맞는 용띠 할머니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처음 만나는 후배를 환한 웃음으로 맞아준 손동창에게 어떻게 가장 보수적인 업종으로 꼽히는 보험사에서 여성CEO가 될 수 있었는지 물었다.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많이 받기에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남성 관료를 상대하려면 남성CEO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그동안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섬세하고 꼼꼼해서 업무도 더 계획적으로 하는 편이지요. 본능적으로 포용적인 모성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을 만들지 않고 조화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구요.” 한국경제신문에 쓴 칼럼 ‘듣는 방법을 배워라.’에서 손동창은 ‘말하는 것은 기술이지만 듣는 것은 예술’이라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 우선 되어야 잘 들을 수 있고, 이러한 경청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부산에서 태어나 경기여고에 진학했던 손동창은 삼성에 계셨던 보수적인 아버지께서 적극 권하셔서 법대의 꿈을 접고 이대 영문과로 진학하게 되었다. 교수가 되고 싶었지만 부모님께서 신부수업을 강조하시는 덕분에 대학 3학년 때부터 시작한 선보기는 손동창을 ‘백번 선본 여자’로 만들 정도였다. 그래도 손동창은 사회생활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졸업 전 지원한 일본항공에 1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뜻을 접어야 했다. 결국 차라리 금융회사가

났겠다고 아버지께서 권유하신 체이스맨해튼은
행 서울지점이 손동창의 첫 직장이 되었다.

그곳에서 손동창은 직장생활의 멘토인 제임스
최 스펙만 전 푸르덴셜생명 사장을 만났다. 당시
상사였던 스펙만 전 사장은, 1996년 남편과 함께
미국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전업주부 손동창을 주
변의 우려를 뿌리치고 푸르덴셜생명 인사부장으로
발령 내었다. 1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하며 승승
장구하는 손동창에게 스펙만 사장은 "You
proved I was right!" "You make your own
luck!!"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곤 했다.

맞신본 지 2주 만에 약혼한 남편 고 이석영 중소
기업청장도 손동창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남
성이다. "그렇게 선을 많이 봤지만 처음 만났을 때
부터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더 이상 좋은 남자 만
날 수 없을 거란 확신이 생겼는데 제 느낌이 딱 맞
았던 거죠." 그 때는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것
이 보통이었지만 공직에 있는 남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생활을 계속하기로 했
고, 회사를 옮겨가며 그 결심을 실천에 옮겼던 손
동창은 1993년 2월 사표를 내고 워싱턴 상무관으
로 발령받은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다. 고위
직이 될수록 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손동창을 외조 했다. 손
동창이 푸르덴셜생명에서 인정받으며 잘나가던
2002년 초 남편은 말기암 판정을 받았고, 병간호
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남편의 만류로
더욱 열심히 갈 길을 가게 된다. "남편은 제가 집에
있으면 더 부담이 된다고 당신이 사회생활을 잘 하
고 있는 모습이 나에겐 가장 큰 위로라 격려해 주었

어요. 그가 투병하는 5년 반 동안 매일 함께 양재천
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던 그 때가 제 삶에서 가
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이화동창들에게 손동창은 많이 읽고, 많이 생각
하고, 많이 배우라고 권한다. "꿈을 가지고 계속 정
진하는 것이 성장이라 생각해요. 세상은 인재 싸움
이거든요. 이화동창들은 남녀공학 출신에 비해 훨
씬 독립적이면서도 여성스러운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뛰어난 점이 많아요." 두 딸(이지민
경영 01졸, 이윤정 대학원 경영학과 00졸)과 두 자
매(손병순 신방 71졸, 손효남 영문 81졸), 그리고 올
케(김영신 영문 80졸)까지 온 가족이 이화동창인 손
동창은 요즘 백 일된 손주 재롱에 푹 빠져 지낸다.

임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작지만 강한 회사
로 많은 일을 더욱 발전시키고, 은퇴하면 지식나눔
봉사활동을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푸르덴셜
사회공헌재단 창립멤버이고 현재는 이사를 맡고
있는 손동창은 중고생자원봉사대회, 저소득층 맞
벌이가정 청소년을 위한 경제교실, 골수기증운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여성
들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멘토링 활동을 하는
WIN(Women In Innovation)을 2005년 창립해
회장을 맡고 있으며,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 나이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건강,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과 동료들이 있어 전 너무 행복해요." 두
꺼운 벽을 뚫은 원동력은 슈퍼우먼의 강한 힘이 아
니라 배려와 섬김의 어머니 마음이라는 걸 확인해
준 손동창에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길 기원한다.

글 백수경(신방79, 이화동창 편집위원)

고객의 문제를 눈높이에서 해결하는 ‘친절한 경희씨’

한경희생활과학과 한경희뷰티 대표

한 경 희



현재 (주)한경희생활과학대표이사,
한경희뷰티 대표, 청년고용 홍보대사
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사무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근무

이대 불문과(87),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MBA
수상/2008년 월스트리트저널 주목할 만한
여성 기업인 50인
2005년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
2004년 벤치 대상 신지식인
저서/『청소 안하는 여자』 『너무 늦은 시작이란 없다』

한경희생활과학에서 만든 스팀 청소기와 스팀 다리미를 써본 사람들은 ‘어쩔 그리 주부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지 진짜 끝내주는 제품’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마 전에는 화장할 때 화장이 잘 받으라고 두들기는 원리를 이용한 진동파운데이션과 진동 마스크팩을 히트시킨 한경희뷰티로 사업을 겁 없이(?) 발전시켰다. 이화여대에서 불문학을 전공하고, 철밥통 교육부 공무원 자리를 박차고 나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회사를 창업해 이런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어낸 한경희 대표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무척이나 궁금하던 차에 이화동창 인터뷰로 반갑게 만날 수 있었다.

1999년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행정사무관(5급) 2년차이면서 주부였던 한동창은 옆드려서 걸레질하는 것이 딱 질색이었다. 그렇다고 깔끔한 성격인 한동창이 대충 대걸레로 문지르고 살긴 아이들도 어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찢찢했다. 맛벌이 부부로 주말이면 대청소를 하곤 했는데 뭐든 뜨거운 물로 하는 게 효과적이었다. 기를 때 물은 그릇도 뜨거운 물에 행구면 뽕뽕 뽕뽕 뽕뽕 걸레질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옆드리기 힘들니까 대걸레에서 뜨거운 김이 나오면 더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을까? 이런 절박한 필요가 창업의 발단이 되었다.

평생 교직에 몸담은 부친의 2남1녀 중 막내딸로 태어나 배화여고를 다닌 한동창은 보수적인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외국에 가고 싶다는 열망으로 불문과를 택했다. 학창시절 영어와 불어에 미치도록 매달려 졸업반 때 주위의 부러움을 사면서 스위스에 본사를 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입

사했다. 그러나 한 농장이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은 남이 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해보는 것이었고 결국 1년만에 IOC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가 MBA와 직장을 병행하게 된다. “언어는 수단이지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렵게 MBA과정을 밟으며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소득은 사업적 관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신감과 무엇보다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얻었다는 점이지요.”

귀국해서 사업의 꿈을 키우던 한 동창은 아버지의 강력한 권유로 서른셋의 나이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1등으로 합격했다. 공무원 생활은 생각보다 보람 있었고 시험 준비를 하며 만난 남편 고남석님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두고 가정도 꾸미게 되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안정적인 생활을 박차고 창업하게 된 계기가 바로 걸레질에 열 받아서라니 놀랍기도 하지만, 잠시도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는 한동창의 열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정희하면 스팀청소기가 우선 떠오르지만 서서 다리미질 할 수 있는 스팀다리미, 가볍고 무공해한 마그네슘 프라이팬,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침구청소기, 정수기 등 수많은 히트 상품들이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없애거나 개선해주자는 친절한 배려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 완벽하리만치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성어린 전문성이 더해져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한 동창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자그마하고 날씬한 몸매에 여성스럽고 부드러웠다. “제가 광대뼈가 두드러져서 사진이 실제보다 훨씬 강해 보이거든요. 게다가 벤처사업가라니 다들 골격이 큰 슈퍼우먼형으로 짐작하시나 봐요.” 그런

데 콤플렉스인 광대뼈를 어떻게든지 숨겨 젊고 예쁜 얼굴로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스마트뷰티’ 비즈니스로 연결 발전시켰다는데 한동창의 탁월함이 돋보인다. 미용기기와 화장품이 결합된 퓨전 화장품에서부터, 화장품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화장품 용기를 선보이고 있는 한정희뷰티는 현재 TV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면세점에서 고객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다.

얼마 전 인생의 전환을 꿈꾸는 여성들을 위해 펴낸 책, ‘너무 늦은 시작이란 없다’에서 한 동창은 늦었다고 포기할 때가 바로 적절한 타이밍이니 현실의 ‘기짜인생’을 버리고 과감하게 ‘진짜인생’을 찾으라고 권하고 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해도 여성에 대한 유리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스스로 계속 담금질하는 이유는 저를 ‘롤모델’로 삼는 수많은 일하는 여성들이 지켜보기 때문이지요. 전 궁정의 힘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오기만이 이러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항상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준 남편이 함께 사업을 도와주고 있고 중학교 3학년과 1학년인 두 아들과 친정 시대까지 자신의 팬으로 만들기까지 그가 쏟은 정성과 노력은 얼마나 컸을까? “이화여대 다닐 때 제가 산악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소원은 가족들과 에베레스트를 동반하는 거예요.” 1500억 매출 중 300억을 수출에서 올리며, 오늘도 세계 각국을 누비고 있는 한동창의 따뜻한 가족 사랑이 느껴지는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글 백수경(신방79, 이화동창편집위원)

품격높고 승화된 연주와 제자양성으로 모교 명예 드높인 피아니스트

함영림 (피아노 80)



● 안녕하세요
니까? 실력 있
는 피아니스트
이며 이화여대
음대 피아노 교
수로서 제자들
을 양성하고 계
시는 교수님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많은 악기 중에 피아노를
전공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1980년에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1학기를 끝내고 가을에 독일로 유학을 갔
어요. 1985년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교에 강사
로 나가게 되었지요. 피아노와 만나게 된 것은 아
주 어렸을 때부터였어요. 집에 피아노가 있었고,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셨어요. 아버지도 음악을 무
척 사랑하셔서, 레코드판도 많았기에 집안에서는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과는 자연스
럽게 친숙해질 수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부터 최규선 교수님께 배우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오정주 교수님께 배웠으니 어려서부터 아주 정통

적인 교습을 받았던 것이지요.

● 예원 중학교와 예고, 이대 음대 피아노과까지
입학과 졸업을 모두 수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
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
트가 되기 위한 연습과 좌절과 성취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서부터 저는 피아노와 함께 살았고, 제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좌절과 성취감을 아주 자연스럽게
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오로지 연
습을 통해서 해소하면서 불필요한 감정 낭비는 별
로 하지 않았어요. 독일에 유학했을 때도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묵묵히 이겨내면서 구름이 잔뜩
끼어 흐리고 우울한 날이면 그래서 피아노를 치고,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맑은 날이면 소리가 영롱
하게 나온다고 좋아하면서 또 피아노를 치고.... 오
로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사를 즐겁게 생각하면
서 연습에 몰두를 했으니까요. 친구들과 경쟁하며
콩쿨에 나갔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화내
고 속상해 하지 않고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졌겠거

니 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오로지 피아노만 치는 성격이니까요. 연습을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아 위축이 되었을 때도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는 과정이 자신을 좀 더 발전하게 한 것 같아요.

● 모교를 졸업하고 난 뒤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독일 유학에서 돌아와서 모교에 강사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독일에 가서 더 공부를 하고 나서 전임이 되었지요. 젊은 나이에 모교에서 일 자리를 갖게 된 것이 저로서는 큰 영광이고 행운이라 봤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저는 학교 안에서 오로지 교수로서의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연주활동을 쉬지 않고 했고, 피아노 교수로서 제자들을 가르는데 전념했습니다.

● 결혼은 언제 하셨으며 자녀는 몇 분 두셨는지요? 가정과 직장생활을 함께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인지요?

1984년이 되던 스물 여덟 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뒤에 또다시 독일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남편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녀는 딸과 아들, 남매를 두었습니다.

여자가 직장을 가지고 결혼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움이 따르지요. 주위에 있는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위시해서 형제들, 친구들에게 신세를 지고 도움을 받아야만 하니까요. 도우미가 없을 때는 목동에서 친정이 있는 논현동까지 아이를 데려다 놓고 부탁을 드리고 출근을 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지요. 또 아이들은 엄마인 내가 돌보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절대적이었기에 틈틈이 놀아주고,



유치원도 꼭 데려다 주고, 자전거도 함께 타기도 하고, 놀이동산이며 전시회장에도 데리고 다니며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개인적인 연주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음악회도 못가고 늘 종종 걸음을 쳤는데도 남편이나 아이들은 불만이 있더라구요. 10살까지는 아이들이 부모를 많이 필요로 하고 지적이나 정서적인 인격 형성에 무척 중요한 시기이기에 옆에 있으려고 애를 썼지만 늘 시간과 체력의 부족감과 내 일을 못한다는 안타까움에 시달렸어요. 요즘 출산율이 자꾸만 떨어져서 큰 문제인데, 직업여성의 육아에 대한 파격적인 복지와 혜택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해요. 그게 곧 젊은이들에게 마음 놓고 아이를 낳게 하고 더 나아가서 국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 학창시절의 친구들과 스승님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예원, 예고를 다니고 음악대학을 다녔기에 거의 다 피아노를 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과과는 때로는 경쟁자이지만 그보다는 음악을 하는 어려움과 보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나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더욱 친하고 편해요. 그때 제가 학생 회장도 했는데, 요즘 만나면 모두 나름대로 좋은 삶을 열심히 살고 있어서 역시 피아노를 공부하면서 닦은 인내와 극기, 성실함을 함께 터득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의 스승님은 중·고등학교 때는 윤기선 선생님께 배웠고, 이화여대에 입학해서부터는 장혜원 교수님이 저의 스승님이셨어요. 장혜원 교수님께서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였고 뛰어난 연주가이시며 다방면에 능력이 많으신 피아노의 대가셨기에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교수님은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이원문화센터를 설립하시어

장소를 제공하며 제자들에게 음악적인 경험을 실제로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게다가 제자들의 생활도 살피면서 건강까지 챙겨주시는 정말 고맙고 배울 점이 많은 스승님이십니다. 그분을 스승으로 모신 저는 참으로 행복한 제자이지요.

●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힘든 일과 보람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요? 피아노를 전공하는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젊을 때에 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나 싶어요. 처음에는 왕성한 열기와 열정으로 가득차서 하나에서 열까지 고치고 가르치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연륜이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생기고 테크닉도 늘고 여유가 생기더군요. 주관적이고 단호함 보다는 개성을 살리고 이해하게 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삶을 보다 깊이 있게 바라보며 제자들의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고 저 자신도 성장하는 보

람이 있더군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피아노를 손가락으로만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음악을 들을 줄 아는 귀를 훈련시키며 많이 듣고 음악을 이해하고 느끼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책이나 그림, 무용, 영화 등 다양한 예술분야와 자연도 감상하면서 종합적인 감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정보가 많은 세상에서 흘러다니는 지식만 믿지 말고 깊이 생각하며 자신만의 능력을 기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막연한 것 같지만 노력하면 됩니다. '성실한 것이 재주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뛰어나도 같고 닮지 않으면 심오한 정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힘든 단계를 뛰어넘어야 참된 연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피아노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인격과 작품에 대한 깊은 연구와 이해심을 기르며 보다 품격 높고 승화된 음악적인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와 연주가 있다면?

작품마다 특색있는 작곡가와 연주가 많기 때문에 꼭 집어서 누가 좋다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하, 하이든, 모짜르트, 베토벤 같은 고전주의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할 때면 항상 교과서처럼 기본을 배우면서 그 악보에 숨은 새로움을 찾는 기쁨이 있지요. 또 슈베르트, 리스트, 슈만, 쇼팽,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같은 낭만주의 작곡가를 만나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고 컨트롤하는 기법이 너무나 뛰어나서 그 아름다운 선율에 취하고, 현대 음악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공감하고 있는 동시대의 느낌이 있기에 그 음악대로 좋구요. 모든 작곡가들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연주가도 마찬가지로

입니다. 저마다 연주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쇼팽을 그 시대에 맞게 치는 루빈스타인이나, 키신, 폴리니, 호로비츠, 알프레드 부렌델 등 뛰어난 연주가들의 실력에 늘 감탄하고 즐겁게 감상하곤 합니다.

● 우리 이대 동창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충동창회에서 음악부장도 하면서 참여를 했는데, 동창 분들의 이화 사랑은 대단하고 헌신적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동창의 힘이 대단함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고 젊은 동창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아서 위 부분은 튼튼한데 중간 허리 부분과 하체가 튼튼한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창모임은 나이 들면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젊은 동창님들도 적극 참여를 하여 세대를 초월해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동창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정보를 주어 동참하는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합니다. 제 경우에는 졸업한 동창들의 제자음악회를 개최해 보니까 모두들 너무나 좋아하고 계속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식구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가 높아지더군요. 각 분야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동창회도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앞으로 더욱 이화의 명예를 높여주시요.

글. 김선주/불문65 한국소설분과 회장, 이화동창편집위원

함영림 피아니스트

이대 피아노과(80), 독일 ESSEN 국립음대(석사), Konzertexamen(최고 연주자 과정), 이화여대 예·체능계열 수석 입학, 현재 한국피아노학회 부회장, 한국피아노듀오협회 부회장, 이대 음악대학 교학부장 겸 건반 악기 전공 주임교수.

KBS 교향악단, 서울시향, 부산시향, 독일 Folkwang orchestra, Deutsches Trio, 폴란드 Krakov 필하모닉, 유라시아 필하모니와 협연

그 때 그 시절 그 교정

이화문화회 그리고 이헌구 선생님



서승옥 | 국문 73,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이화문화회를 빼놓고는 나의 대학생살을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화문화회를 말한다면 이헌구 선생님을 빼놓고는 또 말할 수 없다. 이헌구 선생님을 처음 뵈었던 것은 입학시험으로 면접시험을 치를 때였다. 면접시험을 담당하셨던 분이 이헌구 선생님이셨다. 선생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문학하는 사람의 자긍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다. 입학시험을 치르며 웬지 모르게 기가 좀 죽어있었던 나에게 선생님은 국문과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이화대학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화대학의 3월은 어찌나 춥던지……. 너무 춥고 배가 고팠다. 고등학교 시절의 교복에서 벗어나 모처럼 모양을 내고 대학생이 터를 내려니 추울 수밖에. 1969년 그때도 미니스커트가 유행이던 시절이라 스커트를 짧게 입고 온갖 모양을 내느라 아주 추웠다. 그리고 앞문에서부

터 C관까지 걸어가는 길은 너무 길었다. 국문과가 90명이라 친구를 많이 사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서로 너무 서먹서먹해서 말하기가 어려워서 더 추웠다.

그러다가 2학년이 되었다. 봄에 국문과 소풍으로 강화도에 가게 되었다. 마니산은 아직 겨울이 다 가지지 않은 봄이었지만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시 백일장'을 했다. 이때 박두진 선생님께서는 '시 창작 실기'를 맡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셨었기 때문에 심사를 맡아 주셨다. 진선미로 상을 주셨는데 그때 내가 쓴 시가 신이 되었다. 이헌구 선생님도 함께 심사를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잔잔하고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칭찬하셨다. 그런 칭찬이나를 문학의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아마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 뒤에 더 시를 쓰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서 학교에 마음을 다 붙이지 못하고 있던 나는 '이화문화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이화문화회에 시작은 이헌구 선생님의 만남에서부터인 셈이다. 이헌구 선생님이 지도교수로 계셨던 이화문화회는 해마다 봄에는 시화전을 했고, 가을에는 <이화문학의 향연>이라는 행사로 발표를 했었다. 2학년 가을에는 창작 연극공연에 내가 배우로 참여하게도 되었다. 물론 내기 쓴 시도 낭독했었다. 3학년 가을 행사로는 명동에 있었던 '카페페아 프르'에서 시낭독회를 했었다. 이때는 시낭독과 그시에 어우러지는 무용과 싱악이 함께 있었다. 그때 함께 했던 무용과 3학년이던 박인숙, 그리고 성악을 맡아주었던 연대의 학생, 그들은 모두 훗날 자기들의 전공에서 제자들을 기르는 교수가 되었다. 그들이 공연하는 포스터가 벽보로 붙을 때마다 우리의 3학년 시절을 생

각하며 미소 짓기도 했었다.

그리고 3학년 때 <이화문학>이라는 잡지도 출간했다. 그것을 위해서 마치 출판사 직원처럼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문제는 출판비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화문학>을 만들 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에 광고를 실어서 그 비용을 마련해야했다. 그러기 위해서 대기업, 작은 기업들의 홍보실을 나는 부지런히 찾아다녔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자유롭게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받거나 연락을 위해서 정문 앞에 있는 빅토리아다방에 매일 등교해서 죽치고 앉아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빅토리아다방이 나의 출판 사무실이었던 셈이다.

4학년 가을학기에 학보에 4학년으로 졸업 후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내용으로 쓰라는 청탁이었는데 무언가 칼럼을 하나 냈었다. 취직도 하고, 공부도 더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싶다고 썼던 것 같다. 취직이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과연 그런 것을 내가 할 수 있을 까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내게 이현구 선생님께서 '이대부중' 강사를 추천해 주셨다. 이대부중 강사를 일 년 하고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리고 지도교수이신 이어령 선생님의 연구실에 나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앞방이 이현구 선생님 교수실이였다. 자연스럽게 커피 마시러 아래층 식당에 갈 때는 선생님의 '차 동무(?)' 가 되었다.

그리고 보니 선생님은 나를 참 여러 곳에 추천해 주셨던 것이다. 후에 내가 대학원을 마치고 이대 강사를 하던 때에 '서울예전'의 문예창작과 교수 채용에 추천서를 써주시기도 했으니까 말이다. 추천서를 써주시고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 학장이셨던 최인훈 선생님께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었다. 그랬더니 최인훈 선생



1972년 4학년 시화전 오프닝, 왼쪽 첫 번째가 필자, 이현구 선생님

님께서 집으로 전화를 하셨다. 그 자리는 이미 내정이 되어있다고 죄송하지만 시간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편찮으냐고……. 그래서 이 때 써주신 추천서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그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게 된 것이다.

이때 이현구 선생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회복 중이셨다. 댁으로 찾아간 내게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금은 비뚤비뚤한 글씨로 써주셨다. 그때의 선생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 그래서 그 추천서와 써 주신 그 봉투는 잊을 수가 없다. 그 봉투와 추천서를 지금도 나는 보관하고 있다. 잃어버릴까봐 스캔을 해서 컴퓨터에도 보관하고 있다.

그렇게 늘 이화문학회와 이현구 선생님의 언서리에 서 보냈던 나의 대학생활은 지금도 내 삶의 원천이 되고 있는 셈이다. 얼른 시 추천을 받으라던 박두진 선생님과 이현구 선생님께 '이제 곧 할게요.' 라고 답하던 나는 그 뒤로 시를 잊어버렸다. 아니 자신이 좀 없었기 때문에 잊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도 자랑스러워하시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용기를 주시던 선생님을 추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캄보디아

한여름에 맞는 크리스마스, 학생들 성경캠프 하며 하느님 찬양

이근주 약학78 이태영 부부 선교사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리.



며칠 전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저의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진 찬양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요즘에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전도 폭발' 생각 뿐입니다. 좋은 센터를 허락하시고 좋은 분들을 붙여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 서 기뻐하심을 느끼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난 1월 30일 이 나라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 21분, 그리고 관심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 7분을 초

청하여 전도폭발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프놈펜 지부의 고문으로 모신 권효상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김창영 선교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자신들의 교회에 이 프로그램을 정착시키시기 원하셨습니다. 감리교신학교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정규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기로 하였고 쿤오 교회와 프놈펜트 마이 교회가 Sampling교회를 신청하였습니다. 2월 말경에 관심 있는 분들을 다시 초청하여

4일간의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문서 번역과 컴퓨터 작업을 도울 Chanthon이라는 직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전도폭발에 대한 비전보다는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많아 계속 비전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와 생각이 다르고 언어의 소통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 '전도폭발'을 시작할 때의 생각과 달리 이 사역이 엄청난 사역임을 깨닫게 되고 따라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니 계속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와중에 1월7일부터 10일까지 한국에서 오신 의료팀과 연합하여 끼언스바이 마을의 블랙트마이교회(이윤수 선교사님)와 프놈펜 트마이교회(한우수 선교사님)에서 의료사역이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의 헤브론 병원 봉사와 아가페 하우스 고아원 봉사도 계속되고 있는데 '전도폭발' 사역과 잘 병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찾아 가기도 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며 우리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바쁜 일정과 알게 모르게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저희 부부의 체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지혜와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는 GMS에서 단기 훈련을 받고 파송되었으므로 만3년이 되는 올해에 다시 한국에 들어가 5주 훈련을 받고 장기 선교사로 연장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전도폭발' 사역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게 될 때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속히 안정 궤도에 오를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캄보디아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때까지 이 복음 사역에 계속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들을 드립니다.

1. 2월 말에 있을 현지인 목회자들을 위한 전폭 세미나를 위해, 모든 준비와 강사 섭외에 차질이 없도록,
2. 전도폭발 프놈펜 지부의 이사진 구성을 위해
3. 스텝들이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며 좋은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4. 의료사역과 전폭 사역을 병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5.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마음의 여유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6.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이화인의 나눔가게 로 놀러오세요!!

이화인의 나눔가게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창립 125주년을 맞아
섬김과 나눔의 창립 정신을 되새기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장학기금 및 나눔사업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고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하는 상설 가게입니다.

중고 물품 기증



구매

장학기금 조성 나눔사업기금 조성 (나눔가게 여성교육 기금)



물품기증방법

- 나눔가게로 직접 가지고 오세요. (무거울 경우 생활환경관 근처에 차를 세우고 가게로 전화하시면 받으러 나갑니다.)
- 기증함에 넣어 주세요. (ECC B4, 학생문화관 1층, 나눔가게 옆)
- 택배를 이용하세요. (10개 이상일 경우 착불 가능 / 택배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2 동창회기념관 223호)
- 전화로 문의하세요. (02-3277-3695)

자원봉사단 모집

모집대상 : 모든 이화 가족 (동창, 재학생, 교직원, 은퇴 교직원, 학부모 등)

| **가게위치** :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관 지하 2층 학생식당 앞 | **가게영업시간** : 월~금(오전 10시~오후 5시)



이화인의 재능기부

< 이화 동창 변호사들의 온·오프라인 법률상담서비스 >

| 온·오프라인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란?

이화인의 재능기부 캠페인의 첫 시작으로 이화 법조인회 동창들이
이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창, 교직원, 학생 등 이화 가족이면 누구나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법률 상담 신청 (직접 면담)

직접 본교로 방문하셔서 전문 변호사들과 면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신청하시면 스케줄을 잡아서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 * 이메일 신청 : ewha21@ewha.ac.kr 로 제목을 [법률 상담 신청]으로 하신 후 보내주세요.
- * 전 화 신 청 : 02)3277-2926
- *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5시

| 온라인 법률 상담 신청 (익명 게시판 상담)

직접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온라인 게시판 상담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모든 온라인 상담은 익명 처리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EWHW WOMANS UNIVERSITY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김 영 주 의학88, 이대의대 교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2011년 12월 31일과 2012년 1월1일이 옮겨가는 시점에 나는 교회에서 자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뽑은 올해의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로 바로 위의 구절이다. 1월7일 오후 1시30분 의과대학 A동 앞에 모여서 베트남으로 떠날 때까지 나에게 이 성경 구절이 주는 의미는 심각하게 와 닿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 버스에 올라 2012 EMC 베트남 봉사가 끝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1월14일까지의 7박8일 일정동안 나는 이 성경 구절이 주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이번 베트남 봉사에는 단장인 나와 성연아 교수, 신상진 교수, 김한수 교수와 함께 병원 직원, 의전원 학생, 이대 본교 학생, 그리고 나의 큰 아들 방원기 군이 함께 참여하였는데 진료장소는 베트남 하노이 남부 Thieu Hoa현, Thanh Hoa성이었다.

하노이에서 5시간 정도 떨어진 Thieu Hoa현의 유치원에서 우리는 3일간 1,0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진료 첫 날 아침에는 그곳 베트남 공산당 고위 간부, 현의 고위 관리, 적십자사의 총재 등 베트남 고

위 관리들과 함께 오픈식을 하였는데 나는 단장으로 서 연설을 하였다. 오픈식 후 밀려드는 환자를 열심히 모두 힘을 합쳐 치료하였고 학생들은 풍선 불기, 솜사탕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의 대민 봉사를 하였다. 3일간의 바쁜 진료 후 2시간 떨어진 삼손 해변이라는 곳에서 김시찬 선교사님이 인도한 멋진 리조트에서 먹은 베트남 커피의 맛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저녁 식사 후 함께 봉사하였던 통역들과 씨니 클리닉의 식구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즐거운 대화도 하였다. 국립 베트남대학도 방문하여 vice president 등 교수들과 함께 우리대학과의 교류에 대한 회의를 하였고 신상진 교수와 다른 멤버들은 진료도 하고 씨니 클리닉의 역사에 대해서도 강의를 들으면서 보냈다.

귀국을 앞두고 하노이 시내의 커피숍에서 성연아 교수와 김한수 교수, 효명이와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그곳에서 생일을 맞은 김한수 교수의 생일을 늦었지만 축하하기도 하였다.

이번 여행에서 나는 몇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 모든 것이 7일 동안 이루어짐을 느꼈다. 지금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모든 것들을 나의 인생수첩에 적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소중한 기억들을 나의 마음속에 그리고 기억 속에 깊이 새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7일의 일정은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지는 날들이었으며 나는 이 순간 왜 하나님이 그 성경 구절을 내게 주셨는지 너무나 잘 깨닫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2012 EMC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아까지 않은 김한수 교수와 신상진 교수에게 그리고 함께 행복했던 시간을 나누어준 성연아 교수와 병원 직원들, 학생들, 그리고 아들 원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화문인 산문 릴레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전숙희

문과 38

함남 원산에서 출생.

1938년 이화여전문과를 졸업하고

1956년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비교문학을
수학했다.

1936년 단편소설 〈시골로 가는 노파〉로 등단.

1954년 〈황자의 빈〉을 펴내면서 수필 창작에 전념.

1976년에는 여류문학인회 회장.

1977년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장.

1983~1992년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장.

1991년 이래 국제펜클럽 종신부회장.

1970년 〈동서문화〉(현 〈동서문학〉)을 발간.

한국 최초의 문학박물관인

동서문학관(현 〈한국현대문학관〉)을 세웠다.

2010년 작고

내가 여고시절 그리고 이화여전 초기, 아버님(전주부 목사님)은 목사가 되시고자 신학대학에 입학하셨고, 어머니는 6남매나 되는 아이들과 아버님의 뒷바라지와 생계비를 돕기 위해 자기 몸과 솜씨로 할 수 있는 하숙업을 하셨다. 당시는 일제치 하였고 대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은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 하숙생활을 하며 학업을 계속했다. 그때 우리는 계동(종로구)에 있는 방이 많은 집에 살고 있었다. 하숙업은 고급사업이었고 음식솜씨까지 좋은 어머니의 사업은 늘 만원이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은 방을 하나라도 줄여야만 했

다. 그래서 동생들은 한 방에서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었지만 당시 유명한 이화여전 영문과에 입학까지 한 나는 부모형제들에게서도 특별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풀아래 조그만 방 하나를 독차지하게 되었다. 건너다보이는 안채와 사랑방 쪽에는 언제나 검은 둥근 모자를 쓴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한 방에 두세 명씩 우글거렸다. 그 중에 제일 좋은 방은 큰 안방 옆에 넓은 마루가 있고 그 옆에 붙은 건넌방이었다. 그 방에는 키가 크고 좀 멋지게 보이는 학생이 친구와 둘이서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과 국을 끓여 학생들이 학교에 늦지 않도록 상을 차려 놓으면 큰 대문 앞 행랑채에 세 식구가 살고 있던 어멈(지금의 가정부)이 한방에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따끈한 겹상 하나씩을 들어다 넣어주곤 했다. 그때 건넌방 학생은 새벽이면 더 일찍 일어나 앞마당에 나와 세수를 하고 들어가면 기분이 좋은지 늘 몸을 왔다갔다 흔들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모자를 집어 쓰고 친구와 둘이서 학교로 가는 것이 일상생활인 것 같았다.

그 당시 신촌은 간이기차를 타거나 걸어서 가려면 아현 고개를 넘어 숲이 우거지고 애기능이 있는 산을 넘어서 가야만 하는 산골 마을이었다.

이화여전은 이 대자연 속에 미래 한국 여성교육의 개발을 위해 미국선교회가 마련한 한국 최초의 여성민의 전문대학이었다. 그 산을 넘어 걸어도니 기를 좋아한 나는 늘 지각이 많았다. 당시 나는 학교생활도 자랑스럽고 즐거웠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마음도 무언지 가깝고 기쁘기만 했다.

아침이면 나도 모르게 일찍 일어나 늦대야에 물

을 떠다 방안에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있노라면 어김없이 건넌방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노래는 유행가 같기도 하고 명곡의 한 소절 같기도 하고, 노랫말은 안 들렸지만 그의 매력적인 음성과 몸짓은 당시 나무문이 아닌 창호지문 밖으로는 그림자를 통해서도 잘 보이고 잘 들렸다. 솔직히 말해 결국 나는 그 목소리와 몸짓을 통해 그 남자에 반했거나 혼자만의 방문은 새벽이면 숙제 공기순환을 핑계로 반쯤 열어놓고 건넌방의 음성뿐 아니라 일기 일동을 살피며 조금은 흥분한 상태로 그리나 행복 한 나날을 보냈다.

몇 달 후 여름방학이 지나고 초가을이 왔을 때 내 방에는 예쁜 봉투에 편지 한 장이 놓여있었다. 뜯어보니 건넌방 학생의 짧은 편지였다. 학교관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며칠 후 학교 앞으로 방을 옮겨야만 할 형편이어서 어느 날 어디로 이사한다는 주소와 제발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직접 마주 앉아 서로의 감정이라도 실컷 이야기하며 살고 싶다고 했다. 이사할 집의 주소와 자기 이름 석자도 분명히 적었다. 즉 밖에서 오랜만에 한 번씩이라도 긴 대화와 자유로운 두 사람만의 만남을 원한다는 편지였다.

‘그렇다면 언제나 모른 척하던 그 남자도 나를 은근히 사모하고 있었던 말인가?’

그러나 그 사람이 내 결을 떠난다는 절망에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결국 그 사람은 내 결을 떠나갔고 나는 전디다 못해 자존심 다 비리고 다방이나 전화도 어려웠던 그 시절, 하숙집 근처 골목이나 음

식점에서 만나 그리움을 풀곤 했다. 내 첫사랑도 아니고 단지 꽃송이가 피어나듯 순수한 어린 남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이 가슴 깊이 새겨졌던 짧은 한 토막 에피소드였다.

그 후 60여 년을 지나는 사이 나는 결혼을 했고 아들딸 4남매도 낳아 기르고 전쟁도 치르고 회갑도 고희도 지나면서 처음에는 젊음에 대한 그리움과 지나간 가지가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혼자 누워 웃기도 하고 눈물짓기도 하면서 아, 아, 삶은 고락(苦樂)간에 아름다운 것이구나!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나는 방배동 집에서 한장의 정중한 편지를 받았다. 하얀 고급 봉투에 붓글씨로 쓴 봉투였다. 발신인에는 H.S.Y.라는 애매한 글자만 쓰여 있었다. 주소도 없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가위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오리고 들여다보았다. 편지는 단 한 장이었다. 얼핏 꺼내 글씨를 보며 읽어 내려갔다.

전숙희 씨

저는 교동 시절 20대 초반부터 일생을 사모하던 ‘함00’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름도 다 잊으셨겠지만 저는 전 선생의 그 후 인생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의 마지막으로 한번만 꼭 만나고 싶습니다.

부디 승낙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시면 나가서 잠시만이라도 뵙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아래 전화나 주소로 연락주시면 곧 나가 뵙겠습니다. 보름 이상 연락이 없으시면 사절로 알고 체념하겠습니다.

나는 그 이름 석 자를 보자 잠시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일도 있을까? 반세기 이상 무소식으로 잊고 살던 사람이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가,' 솔직히 말해 나도 만나보고 싶었다. 나는 언제 어디서 그를 곰곰이 생각했다가 우리 집에서 가까운 팔레스 호텔에서 내주에 만나면 어떨까 하고 전화보다는 정중하게 편지 한 장에 장소와 시간을 적어 그의 사무실 주소로 부쳤다.

기다리는 그 한 주일 동안, 까맣게 잊었던 사람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의문과 약간의 그리움으로 나 역시 그 날이 기다려졌다. 혹시 불치의 병에라도 걸려 젊은 날의 무도회의 수첩이라도 열 듯 이 세상 떠나기 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진 마음이 아닐까.

드디어 그날이 왔다. 오후 세 시, 내가 정한 그 조그만 호텔 3층에 있는 와인바를 향해 걸어갔다. 얼마나 변했을까? 그리고 나 역시 노년(老年)으로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무조건 만나고 싶은 마음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싶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호텔 3층을 걸어 올라갔다.

홀 안은 한산하고 조용했다. 깊숙한 홀 안쪽에 자리를 잡으려 늘 입고 다니는 검은 외투차림으로 몇 발자국 걸어들어 가는데 그 앞에서 한 남자가 일어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왔습니다. 앉으시지요.”

귀에 익은 굵은 음성이 조용히 들리며 그는 나의 외투 입을 팔을 부축해 앉혀주었다.

“감사합니다. 꼭 나오실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늘 만나던 사람들처럼 편안히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의 얼굴과 목소리부터 살폈다. 이상하게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그의 둥

근 얼굴, 날카로운 시선, 부드러운 목소리....

“숙희 씨는 하나도 변함이 없군요. 제게는 60년 전의 아름답던 모습 그대로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앞에 놓인 붉은 와인잔을 들어 마주 부딪치며 비로소 긴장을 풀고 서로 쳐다보며 웃었다. 나는 은근히 살피던 그의 모습에서 아무런 병색을 찾을 수 없었다. 기뻐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 시간쯤 이런저런 신변의 이야기들을 하며 가을 오후의 한가로운 시간을 함께 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우리 생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는 열심히 살았고 그가 존경하던 예술가는 되지 못했으나 사업가(油田)로 성공해 상당한 부를 이룬 것 같았다. 그리고 보니 신문지상에서 종종 그의 이름을 본 것 같았다. 원래 그는 평안북도 선천의 재산가의 아들이었고 학문도 경제를 전공했었다. 그 사람은 내가 그만 일어나자는 말에 묻지도 않고 이런 말을 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그곳을 다녀오고 혼자서 가까운 여행이나 몇 군데 하고 오려고 합니다.”

어쩐지 그 말이 명랑하기보다는 조금은 우울하게 들렸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일어나 이별인사를 했다. 그는 돌아온 후 다시 만나자는 말은 하지 않고 검은 외투를 입고 일어선 채 자기 두 팔로 나를 품안에 꼭 껴안았다. 숨이 막히도록.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

“숙희 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름답습니다. 영원한 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반쯤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고, 그 후 다시는 서로 연락이 없었다.



2012 신입 동창 환영회에서 장학금 수여 5천만 원 전달

총동창회는 3월 10일 동창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약 3천 4백여 명의 2012년도 신입 동창 환영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작년 8월과 지난 2월에 졸업한 2012년도 신입 동창들이 총동창회에서는 처음으로 선배들과 함께 자리한 이날, 김영주(유교 71) 사범대학 동창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제까지 학교의 보호 속에 있던 신입동창들이 사회에 나가 확고하게 자리 매김할 때나 그 후에 총동창회가 커다란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선후배간에 돈독한 교류를 통해 함께 어려움과 지혜로움을 나누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하였다.

답사를 한 강초룡(행정학과) 신입 동창은 '아직



도 2005년 신입생으로 입학하면서 느꼈던 설렘과 떨림이 기억난다'면서 '이제는 너무도 익숙한 정든 이화의 교정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쉽지만 이화와 인연을 맺은 것은 큰 행운이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멋진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성 리더로 성장하는 꿈을 키울 수 있으며 앞으로 선배님들께서 애정어린 눈길로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하여 선배 동창들의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이화의 선후배로 만나게 된 것을 축하하고 크게 환영하며 새롭게 도전하는 이화의 정신으로 사회와 가정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이 되길 바란다'는 조종남 총동창회장의 격려와 함께 대학원 신입생 및 대학재학생에게 총 5천만 원이 전달되었다.

정기 임원회에서 '기금 모금 대바자회'

개최 논의

총동창회는 지난 2월 9일과 3월 8일, 두 차례 정기임원회를 열고 2011년도 추경 예산안과 사업계획 심의 및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였다.

특히 정기총회를 위한 준비에 앞서 2012년도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2012년도의 새로운 행사로 '제 1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적극 추진하며 총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대바자회를 5월 24일(예정)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총동창회 제 16대 임원인 황인정(과교 86) 사업부장의 사퇴로 후임에 김계주(불문 78) 동창이 선임되었다.



선교부 소식

'봄 수련회'에서 2012 계획 중보기도 가져

지난 1월 31일부터 1박 2일 동안 총동창회 선교부 봄 수련회를 경기도 파주 살람의 집(전재옥 선교사 댁)에서 가졌다.

첫째 날, 축복의 눈이 내리는 가운데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이주형 목사(새문안교회)의 '바울의 선교 발자취를 따라서(빌립보서 2:25-30)'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와 그 과정 속에서 만나고, 동역하는 사람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이며 소명을 우선시 할 때 그 외의 형편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준비해 주심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동역자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하며 신실한 자세를 가져야 함도 배우는 시간이었다.

다시한번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성찬식을 가졌으며 저녁 식사 후 자신의 신앙여정을 간증하며 친교를 나누었다.

둘째 날은 서은주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나누는 후 동창 선교사와 동창회, 모교를 위하고, 더불어 2012 새해 계획에 대한 중보기도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아래는 이화의 모든 동창들도 증보기도에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증보기도 전문이다.

1. 세계 각국에서 사역위해 힘쓰시는 동창 선교사들이 영육 강건히 소명 잘 감당하기를

2. 이기연이 이화 새내기들을 초청하여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강사이신 김동호 목사님을 통해 복음이 전해 질 때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시작되었기를, 교수님들이 선택 강의를 하실 때 은혜와 감동이, 이화의 캠퍼스에서 배움을 통해 이화에 역사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각자 은사대로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화 기도처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피처와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3. 4월 28일(토) 이대 대강당에서의 메시아 발레 공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학생들의 연습

과정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청중들을 보내주시어 이화가 메시아를 통해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대강당에 성령의 비를 내리시어 보는 이들이 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소서.

4. 5월 15일(화) 대강당에서 있을 이화 126주년 감사찬양제를 주님이 받으소서. 총동창회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하나되게 하소서. 고희원 부흥팀이 이를 준비할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5. 세계 각국의 동창회모임에 예배의 자리가 잘 준비되어 선교부가 생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6. 이화동창선교사 기도 수첩 제작과 분배를 위해- 새로 실리거나 빠져야 할 선교사의 분별 기준과 수첩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분배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2 월 선교부 방문 선교사

서은주(불문 85) 선교사 - 프랑스

김성실(간호 75), 박현선 부부 선교사 - 키자흐스탄

이아리엘(=이인숙 수학 79) 선교사 - 연변

유병국(간호 75) 선교사 - 네팔

송정옥(교공 69) 선교사 - 북방지역

김수지(간호 64) 선교사 - 말라위

대학소식

가나다순으로 게재

간호대학

회장 김진향(간호 73)

동창회 50주년 기념 행사 및 간호메달 수여식



2월 23일 헬렌관 116호에서 졸업생(75명)과 교수진, 연구원,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간호 메달 및 상장 수여식이 있었다. 졸업과 함께 간호사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졸업생들이 사랑과 봉사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지난 2011년 11월 16일에는 '졸업생과의 만남' 행사로 52회 졸업생 12명, 53회 졸업생 22명이 참석, 카네기연구소 서울시티 김승중 소장의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대인관계 스킬'에 대한 특강을 듣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화간호동창회 50주년 기념 '이화간호 동창인의 밤' 행사를 2011년 11월 24일 그랜드 힐튼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Margaret J. Edmunds 탄생 14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함께 한 자리로 1부 만남, 2부 만찬, 3부 화합 한마당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총 200여명의 동창들이 참여하여 동창들의 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였다.

법과대학

회장 박관순(법학 72)

이화법조인 총회 및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자 축하회

1월 16일 '이화법조인 총회 및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자 축하회'를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가졌다. 총 46명의 모교 졸업 합격자 중에서 법과대학 졸업생은 42명으로 합격자 수 대비 대학 순위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에 이어 5위였다. 이날 축하회에는 윤후정 명예총장을 비롯, 김선옥 총장, 송덕수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선희 이화법조인회 회장, 동창회 임원과 이화법조인 및 53회 합격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기쁨을 나누었다.

또한 2월 23일에는 '제 59회 법과대학동창회 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이화삼성교육문화회관 806호실에서 가졌다. 창립 62년째인 법과대학 동창회의 신입회원 중에는 2009년에 개원하여 첫 졸업생들인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선후배의 우의를 다지며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제 1회 졸업생들은 100명이 입학, 89명이 졸업하여이미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사회과학대학

회장 이양준(정외 70)

2012 사업계획 논의하고 확정

2월 14일 모교 ECC 케세이호에서 정기모임을 가지고 2012 사업계획을 논의, 확정하였다. 이날 동창회장학금 200만원을 대외협력처에 전달하였으며 '선배라면 장학기금 모금'을 위해 각 과에서 50명을 목표로 협조하기로 하고 약정서를 3월 정기모임까지 제출하기로 하였다. 정기모임 후 참석 임원들은 이양준 회장이 초대로 영화(신과 인간)관람을 하였다.

아래는 2012년도 사회과학대학 사업계획 안이다.

1. 2월 초순 2012년도 전기 졸업 신입동창에게 동창회 입회 및 입회비 납부통지서 발송- 신입동창 명단과 함께 각 과 동창회에서 신입동창 입회비로 50,000원을 수납하며 수납 시 신입회원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각 과 동일한 기념품).

2. 3월 28일 정기 모임은 동창회가 학장 및 각과 학부장을 초청하는 모임으로 하며 이날 회장이 교체된 과 동창회는 신,구 회장이 참석하여 교체 인사를 겸한다.(선물 준비)

3. 5월 12일 정기 모임은 서울 역사길 산책으로 올해의 이화인과 각과 전임 회장을 초청한다.

4. 9월 27일 정기 모임은 모교 '이화 나눔 가게'에서 1일 봉사하기로 한다.

5. 10, 11월 사회과학대학 학장이 초청하는 오찬 모임 참석 시 총동창회 주최 '이화인의 밤' 행사 티켓을 각 과 동창회장에게 배분토록 한다.

6. 11월 26일 오후 6시 총동창회 주최 '이화인의

밤' 행사에 참석

7. 12월 6일 정기 모임은 차년도 사업계획(안)을 논의하며 함께 이화가족 성탄예배에도 참석한다

이 밖의 공지사항으로 각 과 회장단 정기 모임 날짜 및 각 과 동창회(정치외교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홍보영상학부, 문헌정보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활동과 행사계획 보고의 충무 기록, 회장의 총동창회 정기 임원회에 보고 준비, 각 과 동창회가 납부할 사회대 동창회 연회비 책정, 총동창회 정기총회에 각 과에서 3인이상 참석 독려 등이 있었다.

약학대학

회장 정준순(약학 72)

신년 하례식 및 신입동창 환영회 개최

1월 6일 임원회 및 신년 하례식을 팔레스 호텔에서 가졌다. 44명이 참석하여 정준순 회장의 새해 인사와 이경림 학장의 인사 및 학교소식에 이어 주

홍장학회 이정자 위원장과 약학연구소 권성숙 위원장의 경과보고, 각 부 부장들의 올해의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다.

오찬에 앞서 올해 용띠를 맞이한 임원들이 나와서 Cake cutting 및 건배를 하였고 고문 및 자문위원들의 덕담나누기와 황동수(10기), 김순영(13기), 정점선(21기) 동창들의 시낭송도 있었다.

한편 2월 1일에는 임원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가 E.C.C 이삼봉홀에서 개최되어 51명이 참석, 금년도 졸업생인 유선춘(63기) 신입동창의 입회선서와 정준순 동창회장의 환영사, 이경림 학장의 격려사 후 서효숙 신입동창이 답사를 하였다.

이어서 주홍장학회, 이강희장학회의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으며 신입동창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문화강좌인 "열정과 도전, 그리고 행복한 음악회"을 주제로 김정택 SBS예술단장의 강의와 멋진 연주도 있었다.

체육대학

회장 장혜란(체육 74)

정기총회 및 동창회장 이,취임식

2월 14일 동창회 건미회는 진관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제15대 이영관회장에 이어 제16대 동창회장으로 장혜란 동창을 추대하고 신입 동창회장 취





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30여명의 동창회 임원들이 참석해 새로운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건미희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했다. 취임식에서 장혜란 동창회장은 참석한 동창들의 뜨거운 지지에 감사한다는 말과 함께 “건미희의 발전과 체육대학 동창들의 화합에 열정을 쏟아 새로운 도약의 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2011년 12월 9일 건미희는 체육관 홀에서 100여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체육인 송년의 밤’을 열었다. 1회 졸업생부터 2010년 졸업생까지 한데 모여 우정을 나눈 자리였으며, 특히 지난 2010년 송년회에서 진행되었던 ‘선배라면’ 기부행사의 첫 수혜자(학부 2명)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 보다 뜻 깊은 송년회가 되었다. 푸짐한 먹거리와 모두 함께하는 라인댄스(건미시니어 라인댄스팀)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

어 건미 동창 간의 끈끈한 정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들이었다.

음악대학

회장 방명해 (기익 67)

예술의 전당 초청 ‘벨라보체’ 연주회 개최

지난 2011년 11월 8일 성악과 이규도 명예 교수를 중심으로 현재 왕성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동창 성악가(임경희, 진귀옥, 윤정진, 공영숙, 신지화, 신애경, 이미선, 이순화, 전주원)로 구성된 ‘벨라보체’의 음악회가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열렸다.

2001년 창단 이후로 활발히 활동 중인 벨라보체의 이번 연주회는 특별히 예술의 전당 초청으로 IBK 챔버홀 개관 기념 페스티벌 연주회로 열렸다. 이번 연주에는 졸업생인 신승아, 신모란도 함께 하였다.



가나다순으로 게재

국제사무학과

회장 박경임 (84)

모의면접, 3M Party 등 개최



2011년 11월 17일 취업을 앞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사무학과 모의면접'을 개최하였다. '국제사무학과 모의면접'은 학과에서 주최, 주관하고 국제사무학과 동창회가 후원하여 해마다 열리는 국제사무학과의 대표적인 행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양성희(87, 컨설팅가교), 백지연(94, 국제사무학과 교수) 동창이 면접관으로 참석해 실전모의면접을 진행하였다. 특히 비서, 외국계, 대기업 등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와 포지션에 따라 면접 준비 전략을 세우고, 개인별 차별화 전략수립을 할 수 있도록 면접관 선배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한편 2011년 9월 22일에는 재학

생 3, 4학년들을 위한 취업 진로 멘토링 행사로 제 2회 3M Party(Mentor-Mentee Meeting Party의 약자)를 개최하였다. 제 1회 국제사무학과 3M Party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동창들이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어 자리가 빛났다. 이정은(75) 동창회 고문, 박경임동창회장을 비롯하여 이지현(86, HSBC은행), 김정님(91, 미대사관), 양성희(91, 컨설팅가교), 송은주(92, GCP리서치), 배경희(93, 동양그룹) 동창 등 18명이 참석하여 생생한 직장 경험담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들려주며 선 후배가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11년 5월 26일에도 동창회가 후원하는 '제 4회 국제사무학과 진로탐색 세미나'가 모교 신세계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매년 국제사무학과 동창회가 주축이 되어 국제사무 학부생들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 열리고 있다.



독어독문학과

회장 김영호(73)

2013년에 과 창립 50주년 맞아



2월 10일 베스트웨스턴 강남호텔에서 새해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 동창회는 독문과 창립 50주년이 되는 내년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동창회 활성화에 관한 논의와 덕담을 나누며 오찬을 하였다.

한편 2011년 11월 11일에 열린 송년 모임에서는 3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서로의 한 해 안부 인사를 나누었다. 이날 자랑스런 안윤정(3회) 동창은

한국 여성 경제인 협회를 이끌며 대한 패션 디자이너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에너지를 이야기하며 꿈을 가지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참석 동창들에게 전달한 아름다운 송년 모임이었다.

동양학과

회장 권은희(80)

‘화해와 화합의 한일전’ 전시회 가져

지난 2011년 12월 10일 삼성 교육문화관에서 가진 오용길 교수의 퇴임식에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한편 오숙환(75), 김귀주(74), 권은희(80), 안국주(95), 정혜정(98) 동창 등이 대거 참여한 ‘화해와 화합의 한일전’ 전시회가 갤러리 The K에서 2011년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열렸다.

사학과

회장 이해옥(74)

장학기금 1억 원 모교에 기탁

1월 30일 장학기금 1억 원을 추가로 모교에 기탁하였다. 이는 지난 2011년 12월 22일 동창회에서 기납부한 파주북합단지 조성 기금 1억 원을 장학금으로 용도 변경하여 학교 측에 기탁, 사학과 동창회 장학기금으로 운영하기로 논의한 결정에 의거한 것이다. 2월 23일에는 청(淸)에서 2월 사학과 정기 간사모임을 가졌다. 한편 2011년 12월 15일 이배용(11회)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의 초대로 30여 명

의 각기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간사회 송년 모임을 가지기도 하였다

수학과

회장 한재욱(79)

4월 총회에서 신 구 임원진 교체 예정



2월 6일 총회 준비 임원회를 개최하여 작년 11월 기 간사회의 결정에 따라 총회 일시를 4월 16일 양재 엘타워 8층에서 오후 6시에 하기로 확정하고 많은 동창 참석을 위해 초대장 송부와 각 기 간사들의 협조를 독려하기로 뜻을 모았다. 총회에서는 수지침 특강과 경품추첨, 레크레이션 등을 계획하고 있어 참석 동창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유익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신임 임원진이 될 24기와 2년간 수고한 23기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할 예정이다.



영어영문학과

회장 김창영(74)

제자와 은사가 함께 신년하례식 가져

2월 6일 정동 달개비에서 임원들이 원로 교수들을 모시고 신년하례식을 하였다. 임진년의 힘찬 기운이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염원하며 제자와 은사가 훈훈한 덕담을 나누는 자리였다.

조소과

회장 심인재(74)

동창회 및 이화조각회 통합 운영

2월 17일 예술의 전당 트랭블루에서 동창회 및 이화 조각회 총회를 가졌다. 회장 이취임식, 회칙 개정, 회무보고와 재무보고 등이 식순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특히 그동안 분리되어 운영되던 동창회와 조각회가 공식적으로 통합, 운영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신임 회장에 심인자 동창이 추대되었다.

국내 해외 지회소식

가나다순으로 게재

대구 지회

회장 한은실(기독 72)

2012년도 첫 모임에서 음악회 감상



2월 24일 새해 첫 모임을 남성희 대구지회 부회장(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의 초대로 대구보건대학 본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민경민 회계의 2011년도 회계보고가 있었으며 오찬 후 음악회(아르스노바 남성 중창단)를 감상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1년 12월 2일 프린스호텔에서 개최한 송년회에서는 '환갑, 진갑을 맞은 동창 축하' 행사를 가져 선후배 동창들이 우의를 다진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남가주 지회

회장 김정순(간호 75)

정기총회 및 이화인의 밤 행사 개최

1월 25일 박화자 이사장이 새 회기를 맞아 임원

들을 초대한 임원 모임에서 박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정순 신임 회장, 오명애 전 회장 등 신규 임원들이 모여 2년 동안 동창회를 이끌어갈 이사장과 신임 회장의 포부를 듣고 전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박 이사장은 새 이사 영입에 관한 계획을 밝혔고 신임 김 회장은 좀 더 많은 동창들로부터 동창회비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임원들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동창회관 구입에 대한 꿈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2011년 정기 총회 및 이화인의 밤 행사가 12월 11일 개최되었다. 장계원 부회장의 사회로 최경숙 목사의 기도와 오명애 회장의 환영 인사, 장경혜 사업부장의 재정보고 후 박재경(정외 89) 동창 자녀 유지선 양과 황혜원(무용 85) 동창 자녀 이하영 양에게 각각 1000달러씩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이어서 신임 김정순 회장과 박화자 이사장에 대한 인준이 있었으며 신임 김정순 회장의 '선후배 사이에 좋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멋진 동창회를



만들겠다'는 인사말 후 남가주동창합창단의 합창과 교가 제창으로 총회를 마쳤다.

한나리(체육 92) 동창의 사회로 진행된 이화인의 밤 행사에서는 130여 명의 동창들과 이화의 사위들이 한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뉴욕 지회

회장 유덕향(약학 71)

임원진 신년하례식과故 임길재 박사 장례예배

1월 7일 임진년을 맞아 새해 임원진 모임이 장화인 이사장(교육심리 69) 덕에서 있었다. 장혜원(약학 50) 고문의 격려사와 이사장, 회장의 인사가 있었던 이날 하례식은 맛있는 음식과 멋진 음악이 어우러진 화기애애한 시간이었다.

한편 2월 13일, 101세 생신을 일주일 앞두고 타계한 고 임길재(영문 33) 박사의 장례 예배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뉴욕한인교회 장철우 담임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이날 장례식에는 150여 명의 친지 및 동창들이 참석하여 이향원(의학 51) 박사, 모교 김선옥 총장, Sharon Rader 이화국제재단 이사장의 조사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임종 직전까지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준 임 박사의 유지대로 조의금 대신 많은 동창들과 지인들이 국제재단 임길재 장학기금에 장학금으로 조의를 표하였다. 2월 25일에는 여섯 번째 북부 NJ 모임이 Englewood, NJ



에 있는 FGS KCC에서 18명의 동창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후, 이은주(무용 82) 동창의 지도에 따라 Line Dance를 가졌다.

또한 김금래(사회 75) 여성가족부장관의 뉴욕 방문 시 개최된 '동포 여성 간담회'가 2월 29일 주뉴욕 총영사관 리셉션 홀에서 열렸다. 강명순(시청각 교육 74)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동창과 뉴욕 지역 동포 여성들이 참석하였다.

독일/오스트리아 지회

회장 이순애(체육 80)

소모임 중심으로 모임 활성화 계획

1월 7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모임에서는 지역적으로 넓은 규모를 커버하고 있는 지회 특성상 앞으로 더욱 모임을 활성화하고 연간 전체 모임을 가짐으로써 이화의 정과 자부심을 돈독히 키워갈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순애 회장, 전춘희(가정63) 전임

회장을 비롯하여 유수선(의학 84), 고맹임(독문 82), 전상혜(교육심리 82), 이낙림(독어독문 89), 허선애(종교음악 98), 이정은(독어독문 00), 김희진(건반 07), 정윤지(독어독문 10) 동창 등 세대와 전공을 불문하고 한 자리에 모여 타국에서도 이렇게 이화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느끼며 감사해 하였다.

한편 3월 3일에 열릴 2차 모임을 기대하며 이정완(도예 81) 부회장, 권채란(영문 00) 서기점 회계 등 신입 회장단과 각 지역 총무 시스템으로 (현재 8 지역 예상-베를린, 비엔나, 쾰른, 하이델베르크, 하노버, 뮌헨, 잘츠부르크 등) 지회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멜버른 지회

회장 양수경 (경영 91)

유익한 강의로 뜻깊었던 첫 모임



2012년 첫모임을 3월 19일 크라운 호텔 내 'Kitchen Workshop'에서 가졌다. 10명의 동창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한국과 호주에서 펠트(양모)전문 교수로서, 몽골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미(생미 83) 동창이 참석하여 몽골 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또한 멜버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안수잔(영문 84) 동창의 생활법률 강의도 듣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2011년 11월 28일 한해를 마감하는 모임을 박성혜(기독교 95) 동창 댁에서 가졌다.

몬트리올 지회

회장 이채화(무용 76)

유방암 퇴치 기금 마련 한인 여성합창단에 후원금 전달

2011년 11월 27일 샤브샤브코리아에서 이화송년의 밤 모임이 부부동반으로 열렸다. 모두 29명이 모인 가운데 즐거운 식사를 했으며 이채화 회장의 사회로 여러가지 게임을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또한 총동창회에서 보내온 모교 관련 비디오를 감상하며 학창시절의 옛 추억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날은 특히 이주은 신입 동창 가족의 참여로 한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였다.

한편 12월 3일에는 유방암 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몬트리올 한인 여성합창단 공연을 관람하였고 마



음을 나누는 뜻을 표하며 지부 회원들이 함께 모은 후원금도 전달하였다.

미네소타 지회

회장 이은영(가관71)

한인 2세를 위한 장학금 전달

2월 12일 미니애폴리스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인 2세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화동창회' 이름으로 장학금이 500불이 전달되었다.

보스턴 지회

회장 김희선(법학 77)

2011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회고하며 감사

2월 4일 새해 첫 오찬회를 렉싱턴에 있는 압구정 레스토랑에서 가졌다. 김지수(약학 49) 고문, 서인숙(경영 73) 회계, 조수현(수학 76) 전 회장, 이문희(작곡 77) 부회장, 김희선(법학 77) 회장이 참석,

2011년 보스턴에서 개최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하나님의 인도 하심으로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2012년 밴쿠버에서 열릴 총회에는 부담없이 편안하게 즐기며 참석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뉴욕 뮤지엄 관람을 안전으로 다음 모임을 약속하며 모임을 마쳤다.

북가주 지회

회장 조미정(정의 86)

3월 총회에서 조미정 신임 회장 선출



1월 7일 선후배 동창들이 설빔을 차려입고 덕담을 나누고 웃놀이를 하며 그동안 잊었던 우리 한국의 정서를 만끽하는 새해 맞이 모임을 가졌다. 2월 4일에는 한국의 집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정기 모임을 가졌고 3월 3일 정기총회에서 조미정 동창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한편 지난 2011년 12월 18일 샌프란시스코에 위

치한 올림픽 클럽에서 송년파티가 열렸다. 동창, 이화 사위,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북가주 동창회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메들리, 이화 사위들의 합창, 동창들의 장기 자랑 등이 펼쳐진 가운데 보스턴 총회에서 장기자랑 우승을 한 오페라팀의 'Phantom of Opera'가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북텍사스 지회

회장 이숙재(무용 85)

물방울 장애우 돕기 기금 마련

'배꽃 나눔 바자회' 행사

1월 14일 텍사스 달라스 케롤튼 지역에 위치한 H마트 내 '열린 문화센터'에서 '물방울 장애우 돕기 기금 마련 배꽃 나눔 바자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달라스 주민들과 동창들이 함께 마련한 의류, 아동 용품, 신발, 액세서리, 각종 가정 용품, 유기농 먹걸이 등을 판매하여 마련한 기금은 달라

스 지역 "물방울 장애우"기관에 전달되었다.

모교의 창립정신 아래 이화인의 하나됨을 되새기고 모교 정신 중의 하나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열린 이 날 바자 행사에는 35명의 동창과 부군 12명이 많은 달라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였으며 총 6 번의 사전 준비 임원모임이 있었다.

특히 행사장에는 '물방울장애우 후원회'의 설명회 코너와 달라스 지역 병원 지원 무료 건강진단 코너, 동창들 담소 공간 등을 마련하여 총동창회에서 제작한 '북마크', '핸드폰 줄' 등을 판매하였고 총동창회에서 보내온 학교 홍보 비디오를 참석 동창들이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 홍보를 위해 지역신문에 총 5번 광고를 게재하고 곳곳에 50 여장의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심혈을 기울인 이번 바자회를 통해 북텍사스 지회가 하나 되는 시발점이 만들어졌으며 지역사회에 이대 동창들의 섬김의 리더십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보람과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시애틀 지회

회장 박미경(국문 71)

부서 별로 동창 모여 활발한 활동

1월 7일 박미경 회장 자택에서 신년 모임을 가졌다. 27명의 동창이 모여 떡만두국과 빈대떡 등 푸짐한 음식으로 신년 축하와 함께 유양수, 유명희 동



창의 환갑을 축하했다. 새로나온 옷놀이가 죄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고 앞으로 더욱 더 친목을 도모하며 즐겁고 보람된 동창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지회에서는 음악부, 골프부, 서예부, 문예부, 댄스부, 등산부 등 부서별로 동창들이 모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음악부는 매주 목요일 10명의 동창이 유신열 동창 자택에 모여 해설을 들으며 2시간씩 클래식 음악감상을 하고 있다. 2월 12일에도 탁상희 동창 자택에서 동창 15명이 모여 체육과를 졸업한 김명해 동창의 지도로 신나는 라인댄스와 윌즈 등 댄스 강습을 가졌다.

한편 2월 25일 가진 월례모임에서는 건강교육과를 졸업한 조선용 동창이 노후대책에 관한 주제로 최대한의 노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에 관한 자세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아틀란타 지회

회장 조성숙(가정 64)

합창단, 골프 모임에 이어 기도 모임 만들 계획

매월 2째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모임을 가지는 아틀란타 지회는 1월, 2월 모임이 일기 불순으로 25여 명 밖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세 분의 대 선배들 덕분에 옛 이야기로 화기애애한 모임이 되어 감사했다. 또한 금년부터 시작한 골프모임(회장/ 정제니, 영문 64)의 첫 모임이 1월 18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밀튼 골프 클럽에서 시작했다. 2011년 발족한 합창단 모임은 단장 정소영(영문 62), 지휘 이미애(성악 89), 반주 윤미영(피아노 84)을 중심으로 매월 격주로 연습하며 5월 첫 주에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하는 두개의 소그룹을 가진 아틀란타 지회는 앞으로 기도 모임 그룹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기독교학과 졸업생 동창을 찾고 있다.

한편 2011년 12월 11일 최복희(성악 73)동창 댁에



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말 파티에서 동창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12월 초 이틀란타 MCTV에 조성숙 회장과 성정순 교수가 출연하여 125주년을 맞은 이화대학이 걸어 온 길과 이틀란타 지회에서 계획하며 추진하는 일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올랜도 지회

회장 김광혜(불문 63)

동창들 우의 다진 송년 파티



2011년 12월 13일 49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파티를 겸한 송년 행사가 있었다. 좋은 음식과 즐거운 음악으로 모처럼 동창들 간의 돈독한 우의를 다지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4월 10일 동창모임과 전시회 방문 예정

1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CREALDE SCHOOL OF ART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신혜(섬유예술 92) 동창을 격려하기 위해 4월 10일 동창모임을 가지고 전시회장을 방문하여 작품 감상을 할 예정이다. 신혜 동창은 현재 이 학교의 faculty member이며 다른 7명의 교수진과 함께 작품 전시를 하고 있다.

워싱턴DC 지회

회장 이명지(영문 67)

2012년 행사로 건강, 재정 세미나 등 계획

2011년 12월 10일 4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및 연말 파티를 열고 공천위원회에서 천거한 이명지 후보를 2012년도 신임 회장으로 인준하였다. 신임회장은 2012년에도 변함없이 동창회가 이화정신을 이어가며, 동창 간에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또 모교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든든한 동창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창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총회에 이어 문남희 음악부



장의 지휘로 실력을 키워온 Glee Club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감상하며 참석 동창들은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또한 2011년 12월 17일 지회 이사들이 모여 현 유연담(정외 62) 이사장을 연임토록 하고 윤순구(피아노 61) 동창 및 약간 명을 실행이사로 선출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1월 7일 신임 이명지 회장은 첫 번째 임원회를 열고 2012년 행사로 건강 세미나, 재정 세미나, 유방암 인식을 위한 Walk-A-Thon을 제안하며 가정불화로 Shelter에 거주하는 여인과 아동들을 위하여 외투와 장난감을 전달하고 점심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카르타 지회

회장 민경례(불문 76)

2월 23일 사기숙(피아노 75) 동창을 비롯하여 16명의 동창이 자리를 함께 한 2012 첫 정기동창회가 열렸다. 신임 총무로 심한나(종교음악 98), 전미선(사학 01), 지윤아(통계 02) 동창들이 선임하였다. 이 날 오찬은 동창회가 지난 1월 유경희(교육 85) 동창 자녀 결혼식 축하를 한 것에 대한 답례로 이루어졌다. 한편 2011년 12월 8일 20명의 동창이 자리를 함께 한 송년회가 열려 모두 활기찬 2012년을 맞이할 각오를 하며 지난 2년 동안 총무로 봉사한 이성래(체육 91) 동창에게 감사 선



물을 전달하였다. 마침 이날 생일을 맞은 김형주(독문, 85) 동창 축하도 함께 하였다.

지회에서는 새해 선배들을 더욱 존경하고 후배들을 더욱 사랑하는 동창회가 되기 위해 금년에 환갑을 맞는 사기숙, 이은애(작곡 75) 동창께 후배들이 조출한 잔치를 하기로 하였다.

캔서스 지회

회장 강명숙(제약 74)

1년에 4번 모임 가지며 친목 다져



2월 11일 '초가' 식당에 모여 총동창회에서 보내준 빨간 동창회 수첩을 나누어 가지며 친목을 다졌다. 지난해 11월 모임에서 '교가' 가사가 어렵다는 얘기에 이어 이번 모임에서는 '교가와 교표' 그리고 '이화 학당에 관한 학교 역사와 당시 신문에 난 재미난 기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클리블랜드 지회

회장 노희용(약학과 82)

70여 명 동창들 '이화 만남' 으로 매달 모여

1974년 설립한 클리블랜드지회는 현재 약 70여 명의 동창들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이화 만남'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친교와 유익한 정보를 나누며 동창 가족들의 경조사를 돕고 동창회 행사를 의논하고 있다.

1월 21일 2012년의 첫 '이화 만남'이 김진경 동창 댁에서 있었다. 이날 북미주지회연합회 소속인 클리블랜드 지회의 이사 선출(당연직이사-노희용, 선출이사-이선희, 후원이사-인명숙, 김영례)이 있었고 올해에 지원할 후원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화 마스터 플랜에 기부할 일만 달러 약 조금 달성 시까지 계속 지원할 것이며 국제재단을 통해 설립한 동북오하이오 지회 기부금인 장학기금 및 클리블랜드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금(여성화대 보호기관, 장애 어린이 보호기관, 한국어학교,

한국 입양아 단체, 이화 총동창 북미주 지회 연합회)을 예년과 같이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더불어 금년 밴쿠버에서 개최하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기를 독려했다.

2월 29일 '이화 만남'에서는 총동창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동창회비로 400,000원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동북오하이오 지회 이름으로 국제재단에 설립되어 있는 장학기금은 Helen Kim Society에 Pledge하여 목표하는 \$100,000을 달성하고 그 후에 매해 장학금을 보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외 클리블랜드 지회 회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이사 후임자의 규정과 의무에 관한 조항을 역대 회장단과 현 회장이 모여 상의한 후 다음 달 모임에서 안건으로 토의하기로 하였다.



파리 지회

회장 송미영(불문 75)

푸짐하고 따뜻한 신년회 자리 가져

2월 2일 강효주(섬유예술 97) 댁에서 선후배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 자리를 가져 푸짐하고 따뜻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012-2013 재 불 이화동창회 임원진은 아래와 같다.

회장/ 송미영(불문 75), 부회장/ 홍성부(생활미술 84), 총무/ 정루나(서양화 89), 회계/ 강효주(섬유예술 97), 서기/ 김 윤(불문 06)

휴스턴 지회

회장 김명지(의학 82)

구정맞이 노인회 떡국잔치 15년 째

15년 째 매년 구정맞이 노인회 떡국잔치를 해오고 있는 휴스턴 지회에서는 지난 1월 31일 휴스턴 인근에 사는 동창 22명이 직접 만든 많은 반찬과 떡 만두국, 과일과 떡을 가지고 휴스턴 노인회를 방문, 120 명의 부모님들을 대접하였다. 이 자리에서 동창들은 작년 12월 17일 박영일(약학 72) 동창 댁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연습한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을 불러 감사의 박수를 받았다. 이규환 노인회장은 "이화여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효의 사상도 최고로 모두의 규범이 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홍콩 지회

회장 정도경(사회사업 81)

홍콩 한인 노인회에 난방기 선물



1월 12일 정도경 회장 자택에서 1월 모임을 가졌다. 떡만두국과 윗놀이 게임으로 고국의 설날 분위기를 맛보았고 윗놀이 우승 팀은 정 회장이 준비한 선물을 가져가는 행운도 누렸다. 한편 2011년 12월 7일에는 골프 동호회 모임 '파랑회'가 홍콩 한인 노인회 '정자회'를 방문하여 겨울용 고급 난방기를 기증하고 회원들을 위로하였다. '파랑회'는 작은 자선단체의 성격을 띤 모임으로 회원들이 매년 기부금을 모아 홍콩 한인사회와 현지인들을 위해 작은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모교소식

3,475명의 신입생과 함께한

2012학년도 입학식

지난 2월 24일 대강당에서 '2012학년도 입학식'을 갖고 3,475명의 12학번 신입생을 맞이했다. 김선옥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이제 여러분은 이화 126년의 역사와 전통, 전 세계 19만 이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라며 "청춘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보내게 될 이화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들을 맘껏 실험하고 누리는 풍성한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새내기들의 알찬 대학생활을 위한 조언으로 "도전하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 것과 진정한 벼를 사귄 것, 타인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는 지성인으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모교 남성교수 중창단 '백설공주와 오빠들'이 추가로 신입생들에게 환영의 뜻을 전했고, 이화 브라스앙상블의 축하도 진행됐다. 신입생 신서는 자연과학대학 김현희 씨와 몽골 출신으로 경영대학에 입학한 자르갈사이칸 부드마(Jargalsaikhan Budmaa)씨가 맡았다.

입학식 후에는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행사인 'Welcome to Ewha'가 이어졌다. 첫 순서로 새내기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를 심고, 대학생활 노하우를 전수하는 '선배들과의 수다'가 진행됐다. 재학생 토크쇼 형식의 OT로 지난해 첫선을 보여 신입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선배들의 수다'는 KBS 박은영 아나운서(무용과 05)의 사회로 알찬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는 선배들의 비결을





새내기들에게 전했다.

12학년 신입생 중에는 13명의 EGPP(이화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 장학생도 포함됐다. EGPP는 본교가 개발도상국 여학생들을 선발해 4년간 전액 장학금으로 육성하는 인재육성 프로젝트로 2006년 시작해 아프가니스탄, 네팔, 모잠비크, 케냐 등 총 27개국 117명을 배출했다.

이중에는 1994년 르완다 대학살에서 구사일생으로 생존한 후 EGPP를 통해 꿈에 그리던 늦깎이 대학공부를 시작하게 된 위마나 나타샤(Uwimana Natacha)씨도 있다. 나타샤씨의 가족은 100일 동안 80만명이 사망한 참극 속에서 해외에 있던 지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피난했지만, 모든 것을 잃고 작은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후 주한

르완다 대사관의 도움으로 한국에 들어와 지내다 EGPP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올해 24세인 나타샤 씨는 “한국에 와서 늦게나마 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열심히 공부해서 모국의 재건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리더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2월 27일(월) 대강당에서 '201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총 3,627명(학사 2,405명, 명예졸업 1명, 석사 1,110명, 박사 11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선욱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오늘 빛나는 순간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다”며,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지만 걸어갈 길의 성패는 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가늠될 것이니 현재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최선을 다하라”며 격려했다. 또한 “사랑하는 졸업생들의 선배로서 조언을 전한다”며,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진리를 기억하고 삶의 곳곳에서 더 깊고 큰 배움을 얻어나갈 것, 꿈을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 사랑과 정의라는 윤리적 책무를 기억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졸업생 중 김은영(사회복지전공)씨는 박사 학위 수여를 앞두고 지난 해 12월 안타깝게 숨을 거

뒤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김은영 씨는 복지관에서 일하며 학업을 병행하던 지난 2005년, 6년 전에 앓았던 암의 재발 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경험했던 임상사회복지의 효과를 학문적으로 입증하고 많은 사람과 나누고자 학업을 계속했고, 그 결과 지난 2010년 12월 13일 박사과정을 시작한지 6년 만에 논문 최종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김은영 씨는 학위수여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논문 심사를 마친 10여일 후인 12월 26일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모아 평소 김은영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본교에 기증하고, 예금은 고인이 생전에 활동했던 서울시내 다문화가정 복지센터 30여 곳에 기부했다. 본교는 기부를 받은 아파트를 팔아 다문화가정 관련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어려운 형편의 대학원 후학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졸업식에는 입학 40여년 만에 명예졸업자로 선정된 크라운베이커리 옥명희 사장과 2011년 재입학해 만학의 꿈을 이은 임영자(국어국문학) 씨가 특이졸업자로 주목받았다. 옥명희 사장은 1969년 당시 법정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으나 학업을 지속하지 못했다. 그러나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쳤으며, 국내 우수기업의 CEO로 경영활동 및 봉사활동에 기여한 바를 인정

받아 이번 명예졸업자로 선정됐다. 임영자씨는 결혼과 가족 부양 등으로 늦추었던 학사모의 꿈에도 전, 올해 만 70세로 최고령 졸업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총 6명의 EGPP(이화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 장학생이 학사모를 썼다. EGPP는 본교가 개발도상국 여성인재를 선발해 4년간 전액 장학금으로 육성하는 장학 프로그램이다.

여성 NGO 활동가들 한자리에, 이화글로벌임파워먼트 프로그램(EGEP)

이화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그램(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 EGEP)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지역의 비정부 공익부문 여성 인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운영되는 과정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약하는 공익부문 여성인재를 선발해 교육과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차세대 여성 지도자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 2회(1월, 7월) 각 2주 코스로 운영 예정으로, 첫 회인 2011 겨울 프로그램은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했지만, 향후 아프리카는 물론 남반구 전체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2 여름 프로그램은 7월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 예정이며, 참가 신청은 4월 2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http://egep.ewha.ac.kr>)에서 접수 가능하다.

지난 10월 진행된 첫 프로그램 모집 결과 인도네시아·파키스탄·네팔·인도·중국 등 총 33개국 214명이 지원하는 등 아시아 전역에서 큰 관심을 얻어 프로그램 경쟁률이 10:1을 넘었다.

1월 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가

한 참가자들은 15개국 출신 23명으로 동티모르에서 여성 정치 참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유엔 활동가를 비롯 몽골에서 가정폭력방지법 및 성평등촉진법 통과를 위해 활약하는 NGO 활동가와 기금 모금 및 서민 마이크로금융 분야 코디네이터, 인도 국립대 사회과학분야 유일한 여성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을 망라한다. 선발된 해외지역 참가자 전원에게 교육비는 물론 숙박비와 체재비 일체가 지원됐다.

6일 오전,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기념 국제포럼 '아시아 여성학 2011:아시아 여성주의와 초국가적 여성연대'를 시작으로 각종 강연과 현장 학습 등의 일정으로 구성됐다. 최고 수준의 강연을 위해 본교 장필화 교수(여성학과, 아시아여성학센

터소장), 일본 조사이국제대학교 하라 히로코 교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 사스키아 웨어링, UN 여성기구의 쇼코 이시카와 담당관 등 9개국 12명의 강사진이 함께 했으며, 한국 NGO 현장 탐방을 위해 서울여성가족재단,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환경연대, 하자센터 등 국내 대표적 여성정책 기관 및 NGO를 방문하는 스터디투어 기회도 가졌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우수 인증대학에 모교가 선정됐다.

9만 명에 육박하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질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평가'는 전체 347개 대학(4년제 201개, 전문대 146개)을 대상으로 한 정량평가와 이를 통해 선별된 우수대학의 현장평가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모교는 중도탈락률이 5% 이하이고 일괄 학비감면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지표에서 고득점을 받으며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모교는 해외파견 학생비율 및 국내유치 교환학생 비율이 상위 5%에 이르고, 철저한 출결 및 성적관리와 함께 유학생을 위한 강의계획표, 학사일정편람을 제공하는 등 우수 학생 유치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유학생의 건강보험가입, 건강진단 지원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모교는 외국인 교원 및 학생을 위한 글로벌서비스센터를 신설하고, 유학생들의 진로 지원을 위해 채용설명회 및 외국인 유학생 기업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대학원 진학 설명회를 지원하는 등 질 높은 유학생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본 평가를 통해 유학생 유치·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해 국내대학 유학생 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우수 대학에 시범 인증을 부여해 많은 대학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글로벌 인재들의 보금자리, 제2국제기숙사 봉헌식 개최

모교는 글로벌 인재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제2국제기숙사를 완공하고 2월 17일 제2국제기숙사에서 봉헌식을 개최했다.

제2국제기숙사는 지하1층, 지상10층, 연면적 3613㎡ 규모에 75실(149명 수용)을 갖춘 교환학생 등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기숙사로 휴게실, 라운지, 간이주방과 세탁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각 실에 설치된 디지털 자동 잠금장치, 자동센서 출입조명 등 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용 사실에는 문턱을 없애고 샤워실

에 자동센서를 부착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새로이 지어진 기숙사의 특징은 조화와 개성이다. 주변 기숙사와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발코니의 디자인과 외장재의 변화 등으로 다른 개성을 갖도록 했다.

모교는 지난 2006년 9월 최첨단 시설과 친환경적 구조를 갖춘 이화·삼성 국제기숙사를 완공했으며, 이번 제2기숙사까지 더해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옥 총장을 비롯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이배용 전 총장, 우복희 이화학당 이사, 조종남 총동창회장, 민주통합당 신낙균 의원(제15대 기숙사관장) 등 교내외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선옥 총장은 축사를 통해 "본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그간 축

적해 온 국제화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고, 전세계 60개국 이상의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이화에서 공부하며 '이화속의 작은 지구촌'을 이루고 있다"며 "제2국제기숙사의 완공을 맞아 이화의 국제화가 양적, 질적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후정홀 제막식 열려

3월 21일 오전 11시, 법학관에서 '윤후정 홀' 동판 제막식이 열렸다.

모교 법과대학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인 윤후정 명예총장이 여성인권과 법과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적을 기려 본부의 승인을 얻어 2006년 증축된 법학관 신관을 '윤후정홀'로 명명했다. 제막식에는 윤후정 명예총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선옥 총장, 신인령 전임 총장, 송덕수





법과대학장, 박관순 법과대학 동창회장을 비롯 교내 보직교수, 명예교수, 윤후정 명예총장의 제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후정홀 명명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막식에 이어 '윤후정홀' 명명 기념식과 오찬행사가 ECC 이삼봉홀에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제막식 참석자들을 비롯 윤후정 장학금 장학생, 이화법조인회 회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해 윤후정홀 제막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주관한 송덕수 법과대학장은 기념사에서 "윤후정 선생님은 여성 인권과 법과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다"며, "이화와 이화 법대에 많은 기금을 출연해 온 윤 선생님께 '윤후정홀' 명명을 통해 의미 있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법대 교수진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제막식과 감사모임의 취지를 밝

혔다. 김선옥 총장은 "이 자리를 통해 윤후정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제 '윤후정홀'에서 더 많은 후배들과 더 많은 다음 세대의 이화인들이 선생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선생님의 정신을 새기며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후정 명예총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화인으로서는 그리고 헌법학자로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한 관계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함께 축하해 준 이화 가족과 지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모교 법정대학장, 제10대 총장,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을 역임한 윤후정 명예총장은 여성 법학도 양성 및 법과대학과 이화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을 뿐 아니라 한국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로서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해왔다. 글. 이대 기획처 홍보과

동창소식

졸업연도순 게재

문희 (약학59)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인 문 동창이 2011년 12월 19일 구세군ARC(경기도 안성시 소재)를 방문하여 마약류 및 약물중독자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입소자에게 내복과 떡,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강정숙 (교육심리 63)

미국 텍사스에서 노인대학 코디네이터인 강 동창이 32대 텍사스킬린 한인회장에 선임되었다. (연락처/ 254-699-2131, 254-291-5200)

김현자 (국문 66)

3월 15일 동창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대동창문인회 정기 이사회 및 총회를 갖고 제22대 이대동창문인회 회장으로 이주남(영문 69) 본회 이사를 선출하였다.

이정자 (기독 66)

(사)한국시조문학 이사장이며 이대동창문인회 이사인 이 동창이 2011년 12월 21일 '한국시조문학' 창간호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발행인인 이 동창은 외국어 번역을 통한 타문화지와 차별화를 계획하고 있다.

김경자 (약학 68)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 30회 '화랑미술제'에 김 동창의 '자연율 1201(자연을 작품 시리즈)' 작품이 초대되어 작

품전을 하였다.

구본숙 (무용 69)

영남대 무용과 교수인 구동창은 2월 28일 그랜드호텔에서 정년퇴임 및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장혜자(영문 70)

한국 미술협회 초대작가이며 대전대 서예, 한문학과 외래교수인 장 동창이 최근 (사)갈물한국서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5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갈물한글서회는 한글 서예 연구 및 서예 문화 선도에 앞장선 603명의 여성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송영선 (간호 71)

동아대 교수인 송 동창은 지난 2011년 12월 5일 성장발달론 강의로 최우수 강의 교수상을 수상하였다.

조효숙 (의류 75)

(사)한국복식학회 회장이며 경원대 의류학과 교수인 조 동창이 1월 18일 경원대 부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이경화 (무용 76)

의료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아시안들에게 무료 유방암 검사를 제공하는 아시안 유방건강 아웃리치 프로젝트(ABHOP)에서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 이 동창은 교회 등 단체에서 유방암 조기 발견 세미나를 열고 지역 신문에 컬럼을 기고K는

등 달라스의 한인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북텍사스 지회 14대 회장이었던 이 동창은 매년 멕시코 유카탄에서 가족과 함께 영어 캠프, 요가 교실, 민속 무용으로 문화를 교류하며 선교도 돕고있다.

한향림(도예 79)

헤이리 예술인 마을 안에 있는 '한향림 용기박물관' 관장이며 현대 도예 발전에 공로가 큰 한 동창이 2012년 '현대도예가회' 신입 이사장에 취임했다.

김혜경(장식미술 83)

3월 1일 제6대 동덕여대 디자인대학 학장 및 대학원장에 취임하였다.

김 동창은 대한민국 패션일러스트 협회 회장, 바디워크 회장, 한국 패션디자인 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고영림(불어불문 8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연구원이며 문화 이벤트 기획 단체인 '문화기획 PAN' 대표인 고 동창이 지난 2011년 4월 25일~27일 11월 18일~20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프랑스영화제'를 기획, 주최, 주관하였다.

프랑스 대사관과 프랑스 문화원 후원으로 '봄날의 랑데부'가 테마였던 '제주프랑스영화제'는 한국 지방도시에서 열린 유일한 프랑스 영화제였으며 제주도민, 관광객 등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료 관람할 수 있었다

김수홍(성악 84)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에서 14년째 음대 성악과의 'Associate Professor with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임길재 (영문 33)

2월 10일 향년 100 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임 동창은 뉴욕주 최초의 동양인 개업의로 1964년 뉴욕지회 동창회를 창립한 주역이다. 뉴욕지회 초대 회장과 그 후 30여 년 동안 고문으로서 많은 후배들의 귀감이 되었고 1997년 모교의 '자랑스러운 이화인'에 선정되었으며 2003년에는 이화여대 국제재단에서 공로패를 수상하였다.

Tenure'로 재직하면서 틈틈히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연락처/ 469-939-6921)

나진숙(조소 84)

유중갤러리 관장인 나 동창은 유중재단의 장학 사업인 '우수 신진작가 장학 지원 사업'의 2011년도 공모 수상자로 모교 조소과 출신 조혜진(동대학원 재학)을 선정하고 개인전(유용한 사물전 /2. 23~3. 22)을 지원하였다.

'우수 신진작가 장학 지원 사업'은 시각예술 분야 유망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은라(동양화 84)

2월 11일부터 16일까지 터키 안탈랴시의 'AKM 피라미드 미술전시장'에서 열린 '지중해 아트페어'에 참여하였다.

노승보(생활미술 85)

3월 4일부터 24일까지 Beachwood Arts Council에서 후원하는 전시회 'Diversity Fest Two'를 Beachwood Community 센터에서 가졌다.

박희경(교육심리 86)

텍사스 대학(Arlington), Graduate School of Biomedical Sciences, 텍 사 스 대 학 Southeastern Medical Center 등에서 뇌활동 변화 과정을 통해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연구를 하고 있다.

서은경(영문 91)

미네소타 Duluth대학 Art Department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서 동창이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미네소타 대학 Weisman Art Museum에서 작품 전시를 하고 있다.

성주연(대학원 음악 92)

2월 1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피아노 귀국 독주회를 개최하였다.

정선영(간호 94)

2월3일 개최된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이대목동병원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인 정 동창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앞으로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건의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송미숙(간호 98)

한국방문간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아주대 간호대학 교수인 송 동창이 신임 회장에 선임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방문간호서비스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차지영(간호 00)

2012년 1학기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 교수로 차 동창이 임명되었다.

박성희(성악 01)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보건복지부 푸드뱅크 홍

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 동창이 4월 1일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푸드뱅크와 함께하는 소프라노 박성희 사랑 나눔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김순임(조소 02)

개인전을 3월 2일부터 15일까지 대안공간 눈 갤러리에서 열었다.

길선희 (영문 03)

Central Oklahoma 대학 음향디자이너 및 강사인 길 동창이 오클라호마 출신 가수 페티 페이지의 일대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Flipside"의 Worle Premier 공연의 음향디자인으로 Kennedy Center American College Theater Festival에서 음향디자인 상을 수상하였다.

이경희 (조소 04)

개인전을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토포하우스 갤러리에서 열었다.

민혜영 (조소 05)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바움아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정한솔(영문 07)

뮤지컬을 번역가인 정 동창이 첫 창작극이자 예일대 입학원서로 넣었던 2막극 'Among The Dead' 로 2011 Kennedy Center American College Theater Festival's Michael Kanin Playwriting Awards program의 Paul Stephen Lim Playwriting Award를 수상하였다.

2012년도 '이화인 연회비 납부'에 참여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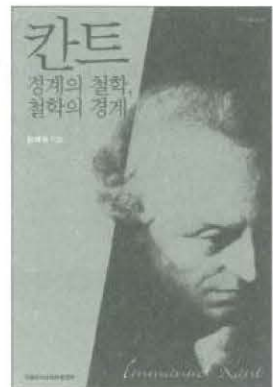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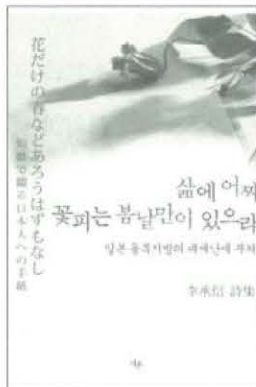
동창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장학사업과 회보 제작 및 우송료 등에 소중한게 쓰이고 있습니다.

연회비(삼만원)는 지로용지 대신 아래 계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동창이 펴낸 새책



김영강 (국문 63)

소설/ 헤드림 출판사

가시꽃향기

1972년 미국으로 이민, 20여 년 동안 토요학교인 남가주 한국학교에서 2세들을 가르치면서 'SAT II 한국어'에 주력하다 우연한 기회로 소설을 쓰기 시작, 결국 화구에서 내뿜는 분김처럼 터져 나온 작품들을 모아 첫 소설을 출간하였다.

이영애 (심리 71)

존로버트앤더슨 저, 이영애 옮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인지심리학과 그 응용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존 로버트 앤더슨의 대표적인 저서. 인지심리학의 중요한 이론 및 연구들이 빠짐없이, 그 어느 책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미국과 유럽의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필독서로 꼽힌다.

이승신 (영문 72)

시집 - 한국어와 일어로 된 한 권의 시집

삶에 어찌 꽃피는 봄날만이 있으랴

시인의 스무 번째 저서이자 4번째 시집으로 작년 3월 일본의 아사히 신문과 중앙일보가 동시에 게재해 화제가 되었던 책이다. 대지진 피해를 갑자기 당한 일본인을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본 지성계를 흔들었고 한일 양국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김혜숙 (영어영문 76, 이대 철학과 교수)

연구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칸트: 경계의 철학, 철학의 경계

칸트에 와서 본격화된 문제인 철학적 반성의 성격과 선형 철학적 방법론을 '경계의 철학' 이라는 이름 아래 칸트의 철학방법론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연구서. 칸트의 실험철학 방법론을 '경계에서 사유하기'로 규정하고 이를 면밀히 논증해내고 있다.



이옥진 (대학원신앙80)

소설 / 문학사상사

나는 내일이면 이 남자를 떠날 것이다

눈 내리는 밤의 이별 같은 감성이 충만한 소설이다. 여교수인 다린과 친구이자 소설가인 헤빈이 중심 축인 이 소설은 여성이 지극히 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거니와 강압적이고 남성주의에 함몰된 사회 속에 구속된 삶의 행로를 뒤쫓고 있다.

조서연 (국문84)

수필 / 수필춘추사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소녀다운 감수성을 잃지 않고 내면의 성장을 끊임없이 추구해온 고운 글이 감동을 준다. 부모에 대한 사랑과 교사로서의 일상을 담담히 써내려간 1부 '나의 삶', 불자로서의 행복한 성찰을 다룬 2부 '나의 사색 및 철학', 3부 '그밖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송경애 (경영84)

성공담 / 위즈덤하우스

나는 99번 긍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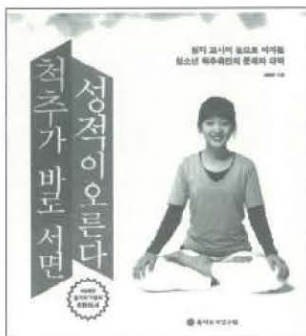
자본금 250만 원을 가지고 2,600억 원대 매출 기업으로 성장시킨 국내 최대 전문 여행사 BT&I 대표 송경애가 성공을 이룬 비결을 공개한다. 긍정의 힘이야말로 성공의 원동력을 강조하면서 자신 역시 처음부터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다고 고백한다.

김성은 (사학88,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연구서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2 아펜젤러

역사와 전통을 돌아보고, 이화정신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한 '이화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의 두 번째 책. 이화 발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앨리스 아펜젤러'의 일대기를 생생하고 구체적인 에피소드로 되살려 소개하였다.



이연주 (과교90)

건강교육 연구서 / 흥익요가연구원

척추가 바로 서면 성적이 오른다

현직 교사의 눈으로 바라본 청소년 척추측만의 문제와 대책을 담은 책. 대부분의 청소년 척추측만은 선천적이거나 기형이 아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의 특발성 척추측만에 해당한다. 따라서 평소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자세와 습관을 바르게 고치고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측만을 예방함은 물론 고른 성장 발달과 집중력 향상으로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5분, 10분, 30분 프로그램은 저자가 과학 교사답게 자신의 반 학생들과 함께 직접 실천하고 성과를 얻은 것이라는 점이 더욱 눈길을 끈다.

노진희 (영문00)

경험담/ 알투스

서른다섯까지는 연습이다

25살부터 시작된 술한 방향과 후회, 좌절의 시간을 보냈다는 저자는 유명한 카피고전들을 인용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자신만의 경험담을 전한다. 그리고 방향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시선을 위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라 분석한다.

이대동창문인회 작품집

이대동창문인회 / 일월서각

첫 클릭 클릭

시, 소설, 수필, 동화, 평론 등 문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이대동창문인회 회원 80명의 주гла는 작품을 모은 책. 감동적 첫 선물, 뜻뜻한 첫사랑, 즐거운 첫 여행 등 설레고 달콤한 '내 삶의 첫 순간'이라는 주제로 회원들이 집필한 수필집이다.

신입 동창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12년 2월 학위 수여식에서 학위를 받으신 동창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총동창회는 신입 회원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앞으로 여러 행사에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납부해주신 연회비는 총동창회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전공

강미경 강지은 공민정 김기혜
김라헬 김미진 김소형 김수린
김아리 김유나 김화현 박두란
박세라 박세인 박소영 박소영
박슬기 박윤희 박지혜 백인혜
백지연 서해지 신동숙 신동희
심채영 양가은 양승희 양은녕
오선혜 유혜리 윤고운하나
윤민영 윤선정 윤휘진 이경희
이미송 이수현 이승언 이예리
이주현 이지영 이진송 이채현
임영자 정옥인 차혜진 최초희
최효선 현은경 황선진 황진주
Kong, Xiao Yi 김세희 남기정
서지연 신성숙 유보라 이보배
이지아 장보미 정보람 주현지
최수빈

중어중문학전공

강현지 고은별 고현경 권지희
김다혜 김유미 김인미 김정연
김주현 김혜진 김효경 류근주
박가현 박선우 박성희 박현주

방진희 서예지 소연지 손상희
시유경 신하영 안숙희 연유진
윤정원 이소영 이은지 이지원
이지은 이지은 이지현 이지희
이태리 이하늘 임미경 정윤경
조가영 지한솔 차소향 최윤희
한보민 히 설 홍서호 황찬미
김현해 류승지 박서윤 박소영
이은주 차소정 Kong, Xiao Yi
Yang, GuoQing

영어영문학전공

강미영 강혜인 권지선 김가현
김미혜 김미희 김민정 김민정
김보라 김사라 김서영 김세희
김소원 김 연 김재린 김하야나
김현해 김형진 김효인 김희진
노윤미 라은경 라중안 류상희
박보영 박수진 박유진 박은경
박지현 박지혜 박지희 박효원
배우리 배효진 백현주 변소연
성민지 신경화 신다정 안아름
안지현 양서희 엄민지 윤나래
이기영 이로운 이보배 이수연
이영은 이장미 이지혜 이지혜

이현주 장윤진 장혜진 전고은
전 함 정새봄 정승은 정재희
정현교 조서인 주은수 지현정
최명인 최서연 최정연 한비인
한세영 한 울 한이연 한지희
허우리 홍유진 홍혜나 황선향
황혜란 황효진 고예림 고현경
김채정 배수진 서윤진 정혜영
조주희

불어불문학전공

고예림 김다솔 김민애 김보영
김 선 김예리 김유진
김지영 김파올라 박선정 박소
영 박소현 박주원 배지연
사지민 서민정 석지운 신정민
신현미 신혜정 심경주
유보라 유지은 윤지영 이나진
이서연 이예담 이지은 이훈지
임유진 장은지 정노경 정연희
조정희 조주희 최민영 허 선
김도연 장정민

독어독문학전공

고 은 김두리 김세희 김세희
김수연 김연진 김예진배수진

서 란 서혜림 송민정 양혜영
이유리 이윤희이은혜 이지원
정내라 정혜영 조은빛 조하나
채수지최수빈 한상령

사학전공

김민정 김연지 김윤재 김은선
김정아 김채정 김태은김해인
남기정 박지은 박진수 백다해
송승이 송하연안지영 여민정
우안정 이수영 이희연 장수영
정정아정우현 최송미조누리

철학전공

강다위 강희영 김민성 김선영
김지연 박은영 박혜진서지연
손은혜 송하영 윤정언 이민지
이정원 장선희정세운 정수민
정주희 한빛나고효주 이현지
정옥인

기독교학전공

김민지 김신혜 김정언 김진희
박유경 배지아 백인하 임세은
임이랑 차두리 한은혜 허두리
허원빈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전공

강은하 고새름 기주옥 김경하
김민정 김민지 김보라 김보현
김수인 김예리 김인애 김정경
김정은 김해인 남진희 모미령
문소연 박가람 박유진 박은형
박혜린 배한솔 백지윤 송지연
송진미 신성숙 신은경 안소현
안정윤 왕수안 유한빛 이기원
이다연 이두나 이수경 이수진
이승현 이유심 이은정 이지예

이하영 이해진임가희 임나혜
임채리 전효점 조수연 조아름
진보인 최보람 최슬기 최혜정
황신우 Liu, MingNa 강다위
김민정 김보경 김하나 김하야나
김혜은 박수진 백다해 이가영
이윤희 이정희 이주연 이지원
임세은 임이랑 정혜선 최명인
최수연 한상령 허원빈

행정학전공

강봄별 강세진 강예람 강은경
강초롱 강현구 강혜영 김민정
김 솔 김재희 김주영 김지윤
김혜선 박상은 박찬영 박채린
박형경 방글이 백아영 송은주
신가은 신유경 신혜원 심상희
안소민 우소현 유다혜 윤소희
이선미 이소미 이양지 이영경
이정아 이정희 이지현 이하늬
조희영 최수연 최아영 최윤희
최정은 최 진 한기은 함초롬
홍선정 강희영 권보라 김민성
안지연 정지인 채수지

Liu, MingNa

경제학전공

강운서 강은정 강현영 김가영
김다영 김민희 김세희김소영
김수정 김언희 김예빈 김윤희
김지혜 김채민 김혜람 김혜리
김혜림 김효영 남궁예슬 남기인
노서영 노현화 문예지 박정은
박정은 백선영 백진영 서수정
서영옥 성보라 성유미 성지현
손지미 손혜란 신선혜 심은지
심현주 안선주 안승해 안현주
양지혜 여나래 오유경 윤상희

윤선미 윤선아 윤승혜 이가영
이기선 이문희 이소라 이수지
이수진 이은주 이재은 이정민
이지현 이해련 이해선 임다영
임유리 장윤영 전해원 정소영
정연주 정은혜 정인정 정지은
조성은 조수현 조아라 조아라
조운주 조원영 조윤미 조윤정
조윤진 조채영 주은진 진 원
진의령 채희정 최다현 최예리
최진아 하수진 한은택 허예상
황다혜 황현영 황혜성

WANG JIAYUN

강봄별 강연의 강예람 강은경
강초롱 고은정 길소연 김나래
김나영 김다혜 김다혜 김민경
김보미 김선영 김슬기 김여울
김영선 김유정 김은정 김정민
김주영 김지희 김혜진 김화현
김희진 김희진 도지원 민정연
박두란 박상은 박선우 박예나
박지혜 박혜리 박혜연 배효진
백아영 서현주 석근영 송명은
송혜진 신다정 신정민 신주연
신현미 신혜원 양지애 양지은
여민정 오세영 오유정 우소현
원은혜 유다혜 유지혜 유혜리
윤정화 이경진 이두나 이소영
이수경 이수연 이승화 이연주
이영경 이유리 이지수 이지현
이진아 이하늘 이해나 이해승
이혜진 임채리 장혜미 전고은
정내라 정 선 정선희 정은솔
정현교 조미정 조수연 조은빛
조혜연 조희영 주재희 지하연
최규진 최아영 최정현 최혜진

한본상 한유선 한지원 홍새별
홍정윤 화창미 황선진 황선향
황효진

문헌정보학전공

김근아 김민정 김현경 서운진
신지윤 양윤수 유명비 유주희
윤효정 이보람 이상미 정다미
주현지 김가영 김우정 김지혜
이지영

사회학전공

강희진 김경남 김희아 김희주
박예림 선종인 이가람이영신
이은솔 정여름 최은채
ZHANGYINGYING ZHANGYU
김강춘 박수진 박현주 서운심
오유경 장은지

사회복지학전공

문보영 강은하

심리학전공

강화연 팽민경 권희아 김나정
김누리 김서현 김신경 김소징
김소정 김수지 김유나 김윤아
김지은 김 진 김태원 김혜선
김혜은 류혜원 박찬미 박한나
배상아 선정희 신혜진 안선영
우사라 육보람 윤아현 이은형
이희종 정설희 정혜린 조인휘
차재은 채혜림 최심결 함초록
강윤경 권유정 김나래 김솔희
김신혜 김영민 김지혜 김현선
김혜연 문혜리 박가람 박경리
박민영 박범조 박지은 배지아
손지미 송현지 신다혜 신동숙
신안나 신유경 유명비 유주희
이기선 이수지 이승재 이혜리
임유진 정서윤 정혜연 조성은

조소연 조유라 조윤미 조윤진
지은선 지현정 진의령 최예리
최초희 현혜정

소비자학전공

권미은 김리원 김미나 김솔희
김지현 김지현 김혜나 김혜연
박수진 성경연 신계화 안주희
엄보람 이소영 이소용 이정민
이하영 이현지 정빛나래 최지은
김수지 김지윤 김혜람 박서경
선정희 안예지 이유정 이훈지
Ruan, Shuai

언론정보학전공

김선혜 김연경 김예지 김혜인
나건림 문진희 박서운 서운심
석근영 송지현 송현지 엄 진
윤수희 이예지 정경화 정유진
조은정 김소형 양승희 이영신
이은지 이재은 이재현 이해연
임가희 정연주 정유진 정유진
최슬기 최정은 한보민 홍서호

광고·홍보학전공

강민정 김 솔 민지희 박지은
박 진 이서진 이주연 정유진
허영선 김소현 김소형 김현경
백수민 신동희 신유정 안소정
윤민영 이은지 장설희 함승현

방송·영상학전공

고효주 김서연 김성수 김소현
김소형 김여울 김정희 김현경
김환희 노민영 박연찬 백수민
백지연 신유정 신은자 안소정
안수지 양명선 이미경 이서희
이은지 이재은 임어진 장 미
정민경 정보람 조현진 진미선
함승현 구예리 김연경 김연지

김유나 박해리 오선혜 이보라
이예지 이유심 조은정 최희옥
한비인

자연과학대학

수학전공

고은정 공주현 팽문영 김규리
김슬기 김은희 민정연 박지혜
박해빈 신혜원 원은혜 유지혜
이경은 이민정 이서연 이연주
이지선 이해나 임수민 장선미
장혜미 정선아 정유진 정은솔
조미정 조별님 지서인 최빛나
최윤정 최혜연 한가람 한지원
한지은 허보영 화창미 장호영

통계학전공

강경민 강서형 강선영 김나래
김민영 김선영 김예원 김예현
김유림 김유정 김정은 김지연
김지희 김진영 남승연 류정은
박신재 박애나 박지혜 박진아
박해리 박혜연 서유형 서은주
서현주 송혜진 안슬기 양지에
오수지 유선영 유연주 윤정화
이경진 이승민 이은미 이지윤
이지은 이진아 이해선 이혜리
장고은 장호영 전상은 전주현
정 선 정세연 정현지 최도란
김규리 이수민 조정연

물리학전공

강이임 김윤정 서지아 안유리
은지나 이소희 이해림 정수현
정한빈 최혜윤

화학·나노과학전공

권은지 김가연 김아리 김용하
김유림 김재미 김진화 박수혜

박지현 방수희 소 희 손지희
신수용 이고은 이민지 이유민
정선정 조경연 주재희 최정윤
한유선 황재연

화학전공

계은정 기효선 김명옥 김문희
김수정 민하연 박선희 박으뜸
석지수 송화영 우애리 이강미
이나은 이서영 이신애 이혜민
이혜수 이해연 이후선 조성화
조소민 차지현 채주희 최연서
허보인 홍세별 윤혜원

생명과학전공

강민지 강옥주 권영희 권정민
길소연 김경선 김나리 김상옥
김성미 김세연 김유리 김윤석
김이슬 김지윤 김혜진 김희영
나지혜 명지연 문정심 박정리
박나현 박소운 박소운 박송이
박여진 박윤하 박은별 박진영
백경아 백희원 서진영 송수빈
신나라 신문경 신미선 신상희
신안나 신원정 안상희 안선영
안세희 엄혜연 엄지수 오영은
오주연 용승희 유미란 유숙경
유신애 유주연 유지현 윤수경
윤은지 윤지혜 윤혜원 이도원
이 랑 이미정 이민진 이수민
이연옥 이우연 이유정 이은영
이지연 이지유 이하늘 이해선
이효정 이효정 임지연 장소라
장윤실 장하늘 정벼리 정수연
정유진 정 정 조나영 조순영
조아라 조현아 진보라 진 주
최고은 최미경 최보운 최수경
최윤선 최정원 최지현 최희화

탁민경 하주는 한예은 한원경
함주리 홍승난 홍주란 황인혜
방수희 한가람

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고은정 구정연 김다솜 김도희
김민지 김빛나 김유빈 김주리
박정원 박지원 박현주 양승희
이소영 한민기 허수연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김미희 박보연 박세진 박은정
박지원 박찬영 서미지 성민영
신나은 이민영 이정임 이하경
임수정 임윤정 장서영 장혜율
한주연 신혜진

컴퓨터학전공

김강춘 김채영

전자공학전공

금윤아 길경원 김지아 박지혜
방지혜 석지영 안수현 이지영
이지혜 정누리 정지혜 최은혜
황이연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구솔지 권주희 김수연 김은지
박소라 박현진 송희림 여 은
윤문형 이에나 이유선 이주현
임혜린 정민영 조혜정 최우리
최정현 홍난기 홍정미 황서영

정보통신학전공

정원경 황나리

건축학전공

강민영 강보라 권순주 김경선
김미연 김자은 노유연 모재은
박상아 박선영 박한솔 백선형
신수정 신영선 오은성 윤은별
이미영 임두원 조정은 주선민

최다정 최은영 최은지 한은규

건축공학전공

김민선 김선우 김은재 송윤희
유화경 윤수민 이민애 장은정
정세라

건축학(4년제)전공

이주영

환경공학전공

강민희 권수현 김강이 김민정
김수영 김아름 김혜연 김희진
박지수 손은지 윤나리 윤승희
이정림 이수빈 이은경 이하연
지승희

환경학전공

박수화 황주영

식품공학전공

김유진 김인아 김지윤 김진영
김하연 김효정 서자은 이초롱
지현경

예술대학

건반악기전공

김소형 김영은 설윤경 송유경
이현하 조혜진 지은선 최희옥
허가연 홍아라 황세미

관현악전공

김현지 송미경 이금희

성악전공

김진은 성 준 이가람 이송이
이지원

작곡전공

김지은 오세린 유예은

작곡·이론전공

김새롬 김유정 서승임

한국음악전공

권하영 김새롬 김정윤 김혜리

김혜미 문신희 박세린 박징아
방윤선 성하주 심정은 안여진
안지은 오시내 오지현 이나리
이자호 장윤정 조누리 조연주
차다슬 최새롬 최주혜 최지원
한 빛 함솔희

동양화전공

계수진 김남하 박윤재 박지산
박지아 방혜림 서인혜 오승민
윤지영 이지운 임수연 정승연
주은미 차현지

서양화전공

권나현 김나현 김수영 김하연
김효명 박근영 박선영 박신영
박지수 서미래 서정은 서 희
송지수 안지혜 오혜진 윤희정
이서금 이소형 이에진 이은지
이준아 이지은 임세연 장새넉
장인선 최현정 한윤경 함초롬
안민영

조소전공

구민수 김민지 김정아 김지연
김시현 남수진 박서운 박선하
안민영 양아라 유서형 유주희
이미연 이현지 이해연 장유경
최윤지 한소현 한진하

섬유예술전공

금수비 김가영 김민유 김상아
김창희 김희연 남은우 노진우
박고은 박해임 박혜진 임민실
유승희 이가용 이경림 임지혜
전혜원 조다현 조은혜 진영리
최새롬 한정주 임세연

도자예술전공

김유림 김찬미 박미정 박아영
전미현 전민경 전예슬 정예슬

유서형

공간디자인전공

권민정 김수영 김정현 김지현
김지혜 류미림 류수지 박여운
이자애 이효현 정 민 정세영
최은호

시각디자인전공

김은비 김지연 김현진 박수진
신보라 엄하정 윤성서 이정수
이희정 장지원

산업디자인전공

고동조 고진아 문인선 민윤아
박소은 박승지 박아름 박혜정
송신애 신지완 신혜성 심지은
안은정 이하정 하나림

패션디자인전공

방시래 손영빈 안은빈 유소은
함주영

영상디자인전공

김서현 김유리 박재령 안현진
윤민정 전혜린 정혜인 조윤진
윤지영

의류학과

강지영 강효정 계화연 김호빈
나예남 류승지 박진경 안가희
안예지 양예지 유정민 윤재원
이신아 이유정 이유현 이주원
인은지 임소연 전유진 전은지
정신우 조효정 한서영 허예은
홍자애 황혜진 김남화 민지영
정수민 함솔웅

무용과

권현화 김미경 김예림 김해리
김혜지 김희용 방서영 변새롬
신혜수 안수현 여정화 오미인
유수민 윤상은 이미혜 이아경

이윤경 이시현 이지희 이초롱
최영주 최윤선 최해인 황희원

사범대학

교육학과

강하늘 김신애 김하람 박남이
신다혜 이계진 이슬기 진달래
차희원 한상미 현승미

유아교육과

강민정 강수지 국 화 권정현
권찬미 김민경 김민정 김민하
김승진 김영민 김진희 김현정
류아련 박향기 신지수 이수지
이하원 이해인 임지희 정혜연
홍예진 홍찬미 황윤정 박유경
오효진 윤신명 이해림

초등교육과

강윤경 권수정 김미정 김민정
김민선 김민정 김은기 김은정
김정은 김지혜 김혜전 김희연
문영은 백지민 복지수 선경래
성아연 손혜진 송가연 신예원
안아영 안인형 오유나 이대아
이성신 이수현 이영민 이창수
장서운 정은영 지미라 최수정
최윤정 최해빛보라 추서영
한지화 홍지민 홍지은 황연이
황희정 김예슬 김현정 라하나
맹예슬 설윤경 이서연 이지운
이향주 장지나 전성아 최시운

교육공학과

강유진 김누리 김다예 김세현
김슬아 김예슬 김원주 김하나
김혜원 박보미 배지은 서 은
설유경 송보용 신나리 신유미
안옥연 안지연 오예지 이지민

이향주 이현주 이효정 이효주
장윤선 정원경 정현민 조성연
차소정 채보람 최소영 태자연
하은비 허윤희

특수교육과

강아라 권유정 김민영 김보민
김선아 김솔지 김수진 김지은
문희순 민성희 민 정 박선아
백경리 서영주 서현주성한나
여나영 오효진 우리정 윤수아
윤신명 이민애 이보배 이서연
이소명 이유림 임선영 정혜림
조재영 천성아 허아람 권주희
김누리 박남이 서 은

영어교육과

고은혜 기윤아 김근영 김다솔
김동은 김소희 김수민 김지영
김진영 나보라 문세인 민세정
박마로 박유하 박진아 박진하
박혜진 반수연 배하늘 신윤영
안혜림 우상아 유미현 유영은
이규완 이나경 이 인 이정아
이현경 이해경 임어진 장다솔
장슬기 조연경 최지운 강하늘
김가현 김신애 김유리 박보미
진달래 최소영 한상미 현승미

사회생활학과

(역사교육전공)

강여울 김민혜 김우정 목세운
박이슬 박재원 배경아 서은혜
송예진 안혜림 이미희 이지운
이희원 정서현 조윤희 채신애
한지희 이현주 조성연 허정운

(지리교육전공)

고혜경 김민지 김소래 김아름
김유리 김지윤 라하나 박인애

박혜리 신연지 신지선 임소희
정혜승 한성실 김선아 윤수아
(일반사회교육전공)

강록영 권주희 김보람 김보아
김예지 김지은 김혜빈 송민정
신미영 양윤영 이보라 이지연
정한아 조수진 최은영 송보용
허윤희

(공통사회전공)

라하나 서은혜

국어교육과

강수빈 김다예 김다예 김민지
김아영 김양희 문선영 문혜리
박서영 박혜준 안수영 유여진
유지아 윤호경 이고은 이세화
이소현 이은진 이해림 임다래
전유진 정서운 정희정 조민영
조소연 조유라 최주은 한지수
홍운정 항보민희 황혜정 김민영
배지은 신나리 이슬기 이효주
정원정 하은비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전공)

김나진 김미영 김수아 김유나
김이영 김지희 김효정 민아영
박영지 박채연 심지연 양지은
이 정 정혜진 조민경 최예나
추승희 허예진

(화학교육전공)

고경란 구태하 김가현 김나연
김미림 김상아 김유정 김지연
김현진 김효영 김희수 문성진
박영선 박정은 안나현 이규희
장지나 조명수 지연미

(생물교육전공)

강명은 권경아 김나영 김진아

노 을 맹예슬 박송미 박재은
박지은 박진영 신 영 유슬기
유연재 윤현진 이가영 이미현
이수윤 이은소 조미라 조은희
조효진 지삼윤 최수현 최연주
황경숙 황혜은 박수정

(지구과학교육전공)

권소라 김미란 김미리 김민지
김보람 김수림 김정민 박수정
송미령 안영은 유혜인 윤지연
이영준 이은진 정민정 조혜내
채지은 최세리 최수민 한예슬

(공통과학전공)

김지희

수학교육과

강은홍 권지민 권해란 김가람
김소연 김현선 김현진 서영란
서은영 성의경 이광신 이상아
이유진 이해미 이해진 임수아
장혜영 정선희 조정의 차주영
홍수연 김미리 김수림 정혜진
조민경 채보람

보건교육과

김유진 이유진 이해림 이해승
이혜진 전주애 허정운

법과대학

법학과

강다영 강연의 고 결 고기연
고민정 고성은 고희승 공수미
곽지현 구자인 권지예 김나래
김나연 김누리 김명선 김미경
김미경 김미정 김민경 김민정
김민재 김민정 김민주 김성희
김소연 김소영 김소형 김송현
김수경 김슬지 김여울 김영선

김영은 김예지 김예진 김은영
 김은주 김주연 김지연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지혜 김찬유
 김찬희 김해미 김현아 김현영
 김희영 김희원 김희진 남경민
 남지현 도혜정 류현주 맹수진
 박교영 박민영 박세미 박소정
 박영미 박은혜 박이랑 박이현
 박지혜 박진영 박혜인 박혜정
 방수란 방연지 배다정 배주는
 백송이 서세은 서승희 서유리
 서현나 선은경 손민지 손승남
 송 정 송다솔 송혜원 신민주
 심상아 심혜란 안민수 안민지
 안제인 안희경 양^양 룡^룡별 오승현
 오유정 유경랑 유빛나 유세영
 유지연 유지혜 유효진 윤사랑
 윤서진 윤성은 윤수영 이가영
 이가영 이다윤 이동영 이미라
 이병희 이보미 이수진 이수현
 이 슬 이승현 이승희 이 아
 이원미 이유평 이윤진 이은정
 이은지 이재영 이정현 이지희
 이진주 이진형 이하나 이하니
 이 현 이현경 이혜진 이혜진
 이화영 이화정 임수현 임지원
 임희진 장우진 장유미 전경령
 전도영 전소영 전은규 정송희
 정우정 정윤지 정 은 정지은
 정지혜 정하림 조두경 조미선
 조인혜 조준영 주혜진 주효진
 지하림 진정원 차하나 채정원
 최상희 최수희 최신애 최예지
 최유경 최 윤 최정아 최정인
 최지은 하지은 한승혜 허현정
 현지연 현 진 홍미옥 홍슬기

홍정화 황수정 황윤정 황진주
 김기나 최지은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강가은 강민정 강민진 구예리
 권보라 권지은 김가영 김다혜
 김도연 김미경 김미리 김보미
 김소라 김소라 김수진 김수진
 김예원 김유빈 김유진 김은정
 김정민 김지애 김지윤 김현정
 김현하 김희진 도지원 류정현
 맹지연 문수정 문지혜 박미진
 박범조 박세란 박소현 박수연
 박유정 서보미 서승희 서인예
 서한나 손효정 신주연 심은경
 안보영 안수민 오영진 이경아
 이수연 이승화 이재은 이주영
 이해원 임경민 임상미 임자은
 임혜영 장혜선 전하늘 정다운
 정세영 정주아 정지은 정지혜
 조명정 조아름 조연희 조혜연
 지하연 최규진 최세라 최정인
 최지영 최지영 한본상 허수정
 현혜정 홍정윤 홍계연
 Ntibashirwa, Chanelle Ruan,
 Shuai Yang, GuoQing
 강민정 강서형 강혜인 강효정
 고기연 고은별 권지선 김리라
 김미나 김미진 김민애 김민지
 김소영 김 슬 김 연 김영은
 김예리 김예리 김옥연 김유경
 김재린 김정연 김정은 김정현
 김주현 김해나 김해인 김효경
 남승연 문숙영 박미선 박보영
 박소영 박여원 박예림 박윤화

박정운 박주운 박지혜 박지혜
 박진수 백선영 백인혜 서예지
 선종인 정보라 손상희 송윤희
 시유정 신연지 신지현 안아름
 안지현 양명선 연유진 오수지
 유연주 이나진 이다연 이로운
 이민영 이민지 이서진 이송아
 이수연 이승민 이신애 이운미
 이유진 이유현 이은혜 이장미
 이주원 이지원 이지윤 이지혜
 이지희 이혜수 인은지 임미경
 임이진 임지연 임하선 장고은
 장 미 장수희 전상은 전 합
 전해주 정새봄 정서현 정수영
 정지원 조수진 조원영 조정희
 조효정 주은진 채주희 최민영
 최보람 최슬기 한서영 한윤정
 한지은 허두리 허영선 허예상
 현은경 Nguyen, HaMi

국제사무학과

남유신 박선희 박지혜 성수연
국제사무학전공
 강하은 강혜인 김다나 김리라
 김예림 김예지 김혜란 문숙영
 박민희 박여원 박원우 박주운
 박지애 방새봄 서수현 신예주
 양영민 유준영 이수인 이은진
 임하선 정수미 정수희 장하정
 조윤영 최유진 최유진 홍현정
 김라헬 김진희 박영훈 박유진
 심경주 유경랑 이슬기 이지은
 이진주 조은영 차두리 최정인
 최주혜 한은혜 홍유진

건강과학대학

간호과학전공

장미라 고정은 김가영 김미희
김민정 김민지 김보민 김 설
김소연 김소형 김수미 김슬기
김애연 김유리 김윤정 김윤정
김은실 김은진 김지선 김지아
김지현 김형주 김희주 남수진
노자민 류진영 박가영 박다현
박샘이 박소라 박수영 박지혜
손지희 송예빈 안소미 안영은
안정은 엄지은 연현숙 오연경
오정연 위다희 윤수지 윤여진
이나예 이서주 이수열 이지애
이지연 이지영 이행아 장누리
장동은 장민진 장주희 전승연
전지은 전초롱 정다희 정서라
정성아 정영민 조소혜 조재실
주한별 주혜인 차근영 최지현
최혜민 최효진 한누리 함승순

체육과학과

강혜덕 광새빛 김나영 김다운
김영지 김희준 문자화 서보영
손남정 신보배 이소현 이슬기
이애린 이주현 이지아 이혜수
인주연 정다운 조보람 조화연
최기희 최정아 함슬옹 박지은

식품영양학과

강수정 강지민 고아라 김달혜
김선미 김은성 김현주 나예슬
박민영 박서경 박수연 소민영
손지현 손혜연 이승재 이유진
이혜민 장 원 장효빈 전연진
전혜주 정가영 정영임 정혜
윤 최 미 정

보건관리학과

김미수 김미중 김수연 김정연
김지은 김현주 김효진 박슬미
박유애 송미정 양선영 유자은
이래현 이미래 이송미 이연희
아유라나 정민지 정유진 최석원
최선희 최슬기 최정윤 최혜진

약학대학

약학과

강세희 강은우 강주경 강주희
강현진 강혜진 경혜원 권지희
김경미 김금지 김다영 김발파
김상아 김성은 김세진 김소리
김소연 김소정 김수지 김수지
김순연 김예슬 김인아 김지덕
김지선 김지수 김지연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현경
김현아 김현정 김현주 김혜림
김혜원 김혜인 김혜정 김희정
류승연 문양원 박 근 박다원
박상미 박서연 박설희 박소미
박소연 박소영 박소현 박수민
박아름 박연주 박영도 박예슬
박유리 박지민 박지완 박진경
박진숙 박진영 박혜린 박혜민
박혜윤 배수지 배지현 백경혜
서효숙 선유리 성희제 손가람
손미리 손현경 송은지 송인강
송주영 송지예 송지은 송채림
송유경 신지연 신지영 신지혜
신효진 안신아 안지윤 양정민
우정희 유가은 유미라 유시은
유영은 유정연 유혜리 윤새하
윤수영 윤이수 이다은 이담정
이민아 이새봄 이선주 이소현

이시정 이영지 이은구 이은선
이은정 이은혜 이인영 이주은
이주현 이지원 이체현 이현정
이현정 이현주 이혜원 이혜정
이혜진 이희원 임혜진 장민주
장예린 장예원 장현지 전은슬
정다빈 정다운 정연주 정유림
정유진 정지운 정지윤 정혜림
정혜연 조문경 조소영 조연수
조운주 조은애 조한나 조혜리
주혜인 진소영 차주현 최수연
최정은 최지원 최훈지 한수민
한수정 허유진 홍혜정 황은성
Yo, Shan Chuen

스크랜튼대학

자기설계(통합적문화연구)전공

김정경 신은경 안수연 안수지
조현진

자기설계(디지털인문학)전공

김효인 이주영

자기설계(사회과학이니셔티브)전공

김세희 김예지 김유미 김태원
신선혜 안지영 윤정원 이하영
이혜련 최아영

자기설계(과학과생명)전공

손지희 신상희 안상희

자기설계(인체와건강)전공

강옥주 김가연 박송이 백경아
백희원 이 랑 정벼리 조나영
최보운 홍주란

자기설계(사회와정의)전공

강현구 김재린 류근주 엄도영
엄민지 이민정

국제학전공

강슬기 권유비 김보경 김서연
김연수 김유경 김이수 김정현
김정현 김지나 김호운 김회원
박미선 박정윤 손민지 송명은
송아란 신지현 안수연 안희진
엄도영 오세영 오예리 유정은
이민영 이송아 이윤주 이지수
이하연 이혜연 임초록 임현채
장미리 장정민 정윤재 정지원
정혜선 조규현 조려진 차지혜
최승은 최지선 한윤정 한지은
Nguyen, HaMi 강혜인 이 인

음악대학

건반악기전공

김지영 김지영 김하랑 박혜린
박희연 방선혜 신나래 양수진
오수빈 유미진 유선형 윤정현
이루다 이소망 장지수 정유성
정인에 조세명 한예슬 홍지예

건반악기와

권나현 이유경

관현악전공

강지원 구연제 김다진 김예슬
김찬혜 김혜지 류선영 박태연
손소정 송현승 신윤주 안예원
양희주 어유진 오세희 오유진
윤이나 이민희 이현영 임연하
장나은 전수지 정수아 정숙영
조서영

관현악과

김지윤 이순호

이정아

성악전공

김고은 김고은 김문진 김수민

김은유 김윤희 김재연 박수민
박홍주 배서은 윤이정 장은수
전혜민 정드라 정유리 최은혜
성악과

김유현

교회음악전공

김민진

작곡전공

김 민 김희나 박수현 송명현
심희진 오윤선 윤소진 윤윤진
이소라 이수진 임소진

작곡과

이민휘

한국음악전공

김은진 박민주 박신혜 박애란
송효정 이신애 정다운

한국음악과

김보영 이유나 임지연 장보미
최정은 최진나

조형예술대학

한국화전공

김옥연 이우연 이정은 한진선
회화 · 판화전공
권민지 박민희 박인희 신정주
안초롱 이지윤 정수영 최이진
한우리 김유나

조소전공

김동희 김자인 박희정 이지혜
최진원 허수영

환경디자인전공

김나래 박성아 서혜은 정승임
시각정보디자인전공
고현정 박선엽 옥세은 이지수
신혜주 최이진

산업디자인전공

김윤지 김진아 윤혜림 최숨이

패션디자인전공

신슬기 신정민 유지니 이예원
함가영 박인희 이지윤

섬유예술전공

김명지 김유나 백수미 신혜주
이다솜

체육과학대학

체육학과

김기나 김미정 김민아 남혜진
박영훈 윤혜준 이진주 전미리
정소현 조은영 최고야 최미정
정연희

사회체육학전공

신영화

무용과

김민정 윤태진

의과대학

의학과

이지연

간호과학대학

간호과학과

권경미 이윤진 정미영

생활환경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전공

김숙진 민지영 신진희 유나영

의류직물학전공

김화영 박선희 배문주 서지은
이승은 이주화 이채민 정지인
한지윤

식품영양학전공

김유선 김혜린 여가은 윤현미

이동윤 장정윤

연계전공

동아시아학전공

박은혜 안소현 이수영 최상희

미국학전공

김민지

유럽학전공

김은진

미술사학전공

김기혜 김연진 김윤재 김정아
김지나 김지연 김진 김호빈
박선영 박선영 박신영 박윤재
박주원 박지수 박지현 박진경
방혜림 서인혜 성유미 성정연
우안정 유주희 윤새하 윤재원
윤효정 이예지 이예진 이지은
이지은 이지혜 이현지 장윤선
정경아 주은미 최새봄 최윤지
최진원 한우리 허선 허예은

여성학전공

강희영 김희영 신가은 신미선
안선주 엄진 우사라 이진송
이진주 최효선 한빛나

멀티미디어학전공

오예지 이미경

전문영어전공

김민정 손민지 윤지영 정소현

NGO전공

김민정 노서영

북한학전공

고새롬 김다애 박지혜 서란
전경령 최지선 함초름

한국학전공

김아영 이에리 정희정 한이연
황보민희 황진주

인지과학전공

이은형 조려진 황진주

도덕·윤리교육전공

김하람 박남이 신다혜 윤정연

과학기술경영전공

권은지 이강미 이연옥 정선정

재무경제전공

김예현 서한나 신주연 윤선아
이재은 전주현 정인정 채희정
한은택

공통사회전공

강록영 강여울 고혜경 권주희
김민지 김민혜 김보람 김보아
김소래 김아름 김예지 김우정
김유리 김지운 김지은 김혜빈
목세윤 박이슬 박인애 박계원
박해리 배경아 송민정 송예진
신미영 신연지 신지선 안혜림
양윤영 이미희 이지윤 이희원
임소희 정서현 정한아 정혜승
조수진 조윤희 채신애 최은영
한성실 한지희

공통과학전공

강명은 고정란 구태하 권경아
권소라 김가현 김나연 김나영
감나진 김미란 김미리 김미림
김미영 김민지 김보람 김상아
김수림 김수아 김유나 김유정
김이영 김정민 김지연 김진아
김현진 김효영 김효정 김희수

노을 맹예슬 문성진 민아영
박송미 박수정 박영선 박영지
박재은 박정은 박지은 박진영
박채연 송미령 신영 심지연
안나현 안영은 양지은 유슬기
유연재 유혜인 윤지연 윤현진
이가영 이규희 이미현 이수윤
이영준 이은소 이은진 이정
장지나 정민정 정혜진 조명수
조미라 조민경 조은희 조혜내
조효진 지삼윤 지연미 채지은
최세리 최수민 최수현 최연주
최예나 추승희 한예슬 허예진
황경숙 황혜은

아동학전공

강민정 김민경 김소정 김지은
박지아 박찬미 배지아 육보람
이수지 이유리나 이혜인 임지희

바이오인포매틱스전공

김상욱

일본언어문화전공

김보영 김아리 김은선 김희주
박선정 박세인 박은영 배우리
서승희 성하주 양가은 양은녕
윤선정 윤수민 이미송 이상미
이승언 이승은 이은정 이은진
장유경 전미리 최예리 황혜정

사회복지학전공

이송미

명예 졸업증서 수여자

육명희

바로잡습니다

125호에 게재한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중 '김기원(수학교육81)'은 김기원(수학81)로 정정합니다.

HYUNDAI
MOTOR GROUP

인류의 내일을 건설합니다

메마른 땅에 물을,
소통이 단절된 곳에 길을,
꿈이 없는 곳에
희망을 건설하는 일 -
현대건설이
지구와 사람의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WE
BUILD
TOMORROW



EXPO 2012
YEOSU KOREA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현대건설



축하합니다



김태련(심리 60) 동창 ‘바른교육인상’ 수상

지난 1월 20일 여성신문사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후원하는 ‘2012 학부모가 뽑은 교육브랜드대상’에서 김태련 동창이 바람직한 교육 철학의 실천과 교육환경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바른교육인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문용자(의학 62) 동창 2011년도 한빛 대상 수상

2011년 12월에 개최한 ‘2011 한센인 후원의 밤’에서 문용자 의사협회 고문이 한빛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빛복지협회가 한센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를 대상으로 부문별 시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여성의원 발전연구회장이며 지성웰빙의원장인 문 동창 2011년도 보건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최보원(의학 69) 동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취임

지난 1월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에서 최보원 동창이 제 10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사장과 소장을 회원 투표로 선출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으로 선임된 최 동창은 ‘최보원 산부인과’ 원장이며 성폭력상담소 개설 초창기부터 이사로 활동하며 상담소의 역할증대와 발전에 기여해왔다.



박영선(가정관리 69) 동창 대구미래대학 총장 취임

한국영양학회 이사, 대구대 가정대학장을 역임한 박 동창이 대구미래대학 제 13대 총장에 취임하였다. 1981년부터 대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동아시아식생활학회 상임이사, 대한가정학회 이사, 대한가정학회 국문학회지 논문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홍희(불어불문 71) 동창

서울시립미술관장 취임

전 경기도립미술관장인 김홍희 동창이 지난 1월 12일 서울시립미술관장에 취임하였다. 캐나다 Concordia 대학 서양미술사 석사와 홍익대 미술사 박사인 김관장은 '백남준 전문가'로 불리우며 '2006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씬지스페이스관장 등을 역임했다.



신경인(교육공학 75) 동창

한국YWCA 서부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제주YWCA 회장인 신경인 동창이 2월 10일 강원도에서 열린 한국YWCA 정기총회에서 2012년 한국YWCA 서부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서부지역위원회는 전국 YWCA 중 전라, 제주권에 소속되어있는 10개 YWCA를 대표하는 위원회로 신 위원장은 한국YWCA 실행위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박정선(의학 78) 동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본부원장취임

1월 1일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 원장으로 박정선 동창이 취임하였다. 예방의학, 산업의학 전문의로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인 박동창은 작년 7월 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사상 처음으로 산업포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박은주(수학 79) 동창

한국공학한림원 해동상수상

김영사 대표인 박동창이 1월 30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선정한 제 7회 해동상 수상자로서 상금과 상패를 수여받았다. 해동상은 저술, 출판 등 공학기술 문화 확산과 공학교육 혁신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출판업계 최고 여성 CEO로 많은 베스트셀러를 기획한 박동창이 그 영예를 안았다.



이명숙(법학 86) 동창

‘여성가족부장관표창’ 받아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 변호사인 이명숙 동창이 2월 22일 여성가족부가 개최하는 '제6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1990년 변호사 개업 이래 20여 년간 여성, 아동, 청소년 관련 사건의 무료상담과 소송지원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명숙 동창은 '성폭력 피해자의 수호천사' 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다.



이선희(의학 88) 동창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에 선임

임기 3년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입 원장에 이선희 동창이 선임됐다. 모교 예방의학교실 교수이며 보건정책전문가인 이 동창은 그동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 대한의학회 의료정책이사를 맡는 등 활발한 외부활동을 통해 조직관리 경험을 쌓아왔다.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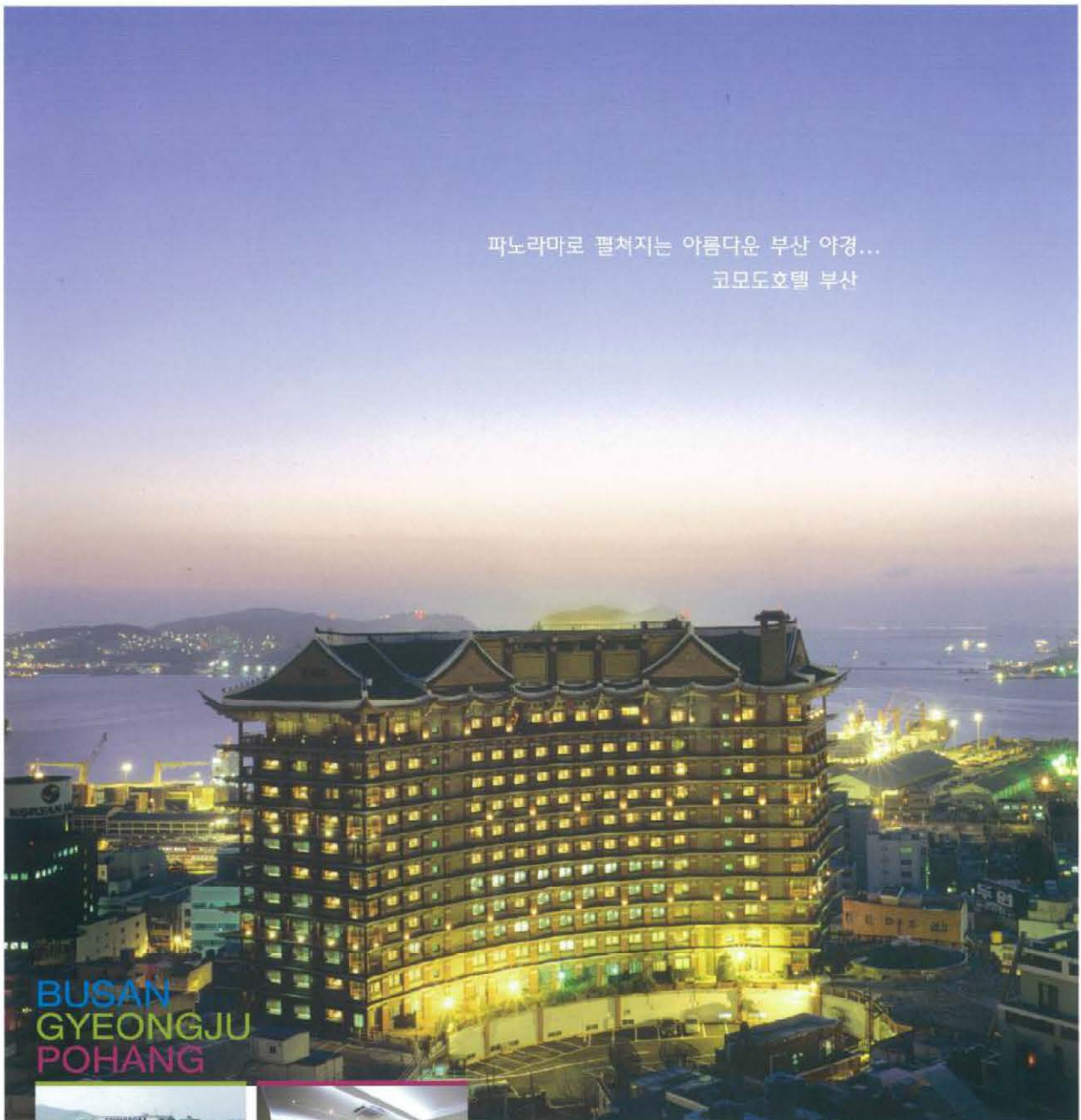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 업계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회원의 회원을 관리하는 세심한 서비스
- 고급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클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고객의 성향까지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토데오피스 7F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S. Noble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부산 야경...
코모도호텔 부산



BUSAN
GYEONGJU
POH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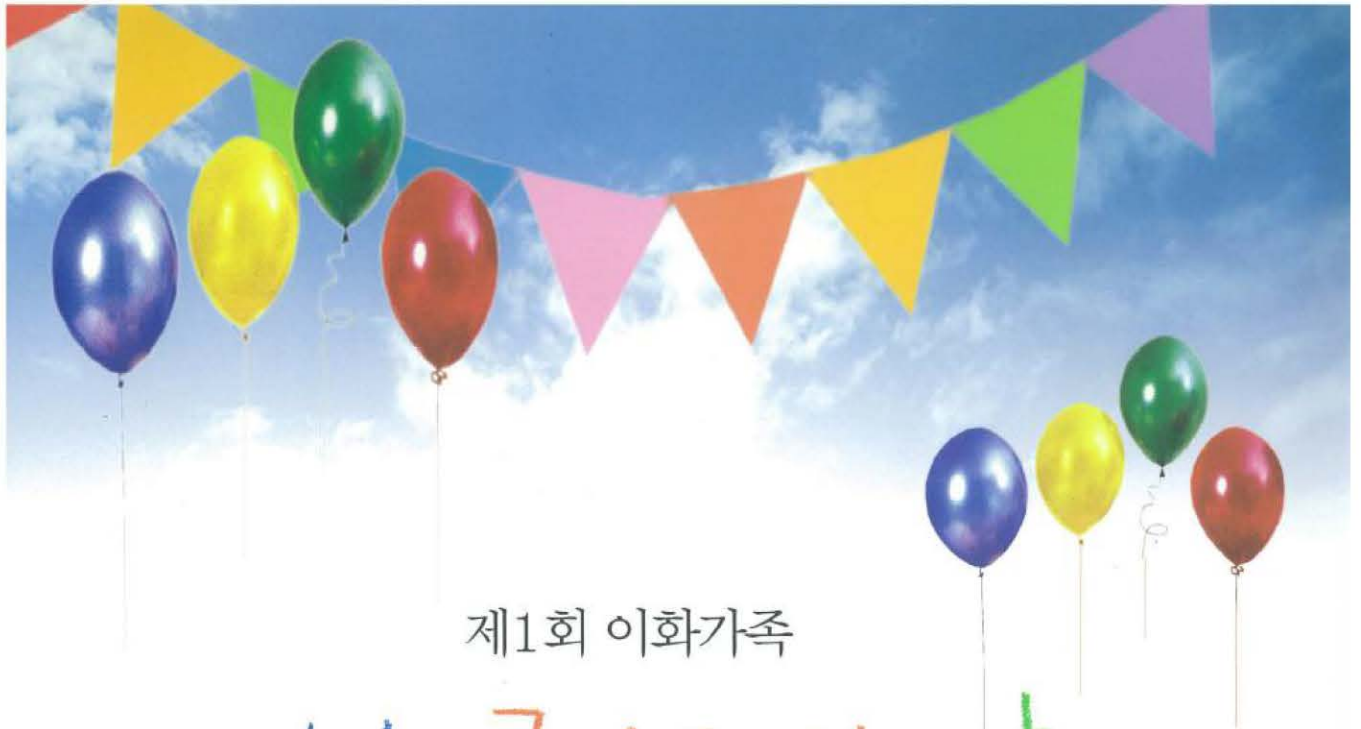


코모도호텔 부산을 비롯하여 코모도호텔 경주, 코모도호텔 포항 등 3개의 호텔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코모도호텔 그룹은 가장 한국적인 호텔이며 고객과의 30년 이상의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만족 이상의 감동을 실현하는 코모도호텔 부산에서 격조 높은 서비스와 편안한 휴식을 경험하십시오.

문의 및 예약 051) 466-9101

이영숙 (약학57) 동창

코모도호텔 부산 | 600-110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743-80 TEL : 051) 466-9101 FAX : 051) 462-9108 www.commodore.co.kr
코모도호텔 경주 | 780-290 경북 경주시 신평동 410-2 TEL : 054) 745-7701 FAX : 054)740-8349 www.commodorehotel.co.kr
코모도호텔 포항 | 790-829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311-2 TEL : 054)241-1400 FAX : 054)242-7534 www.commodorepohang.co.kr



제1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는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 5월에 이화가족들과 함께 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제 1회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를 개최하고 시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와 함께 오셔서 그림도 그리고 학교도 돌아보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2년 5월 12일(토) 오전 10시 - 오후 2시

장소 이화캠퍼스 내(추후 공지)

참가자격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1,2,3학년)

(이화동창의 손주나 자녀, 교직원 자녀, 부속유치원 및 초등학교 재학생)

참가비 20,000원(기념품 및 2인 점심 제공)

접수마감 2012년 4월 30일(월) (선착순 200명 마감 예정)

문의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3277-3386, 3387 / 팩스)393-9141

e-mail)ewhaalum@ewha.ac.kr